

용인문화원 간행 향토자료

제
7
절





1. 내 고장 민속

향토문화자료 제7집. 민속학자 하주성이 집필한 책. 4×6판 2백 쪽 분량으로 1987년 2월 1일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하였다. 이에 수록된 민속은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에 행하여졌던 내용을 채록한 것으로서 이제는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수록 내용은 경기 지방에서 유행하던 거북놀이를 필두로 두레싸움, 재돋음, 지경단기, 지신밟기, 줄다리기, 장치기, 닭교놀이, 달맞이 등과 전승, 민속놀이, 세시풍속, 토속신앙, 무가, 무속 등이 망라되어 있으며 놀이 별로 연희, 시기, 인원, 편성, 놀이의 진행방법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이를 바탕으로 놀이를 재현 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특히, 이 책의 특징은 놀이에 곁들여지는 노래, 풍물, 가락 등을 채보 병기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발행부수 500부.



2. 내 고장 민요

용인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회 이인영, 홍순석이 공편한 책. 용인문화원 1983년 12월 20일 향토문화자료 제2집으로 출간되었으며 문화원(원장 김정근)이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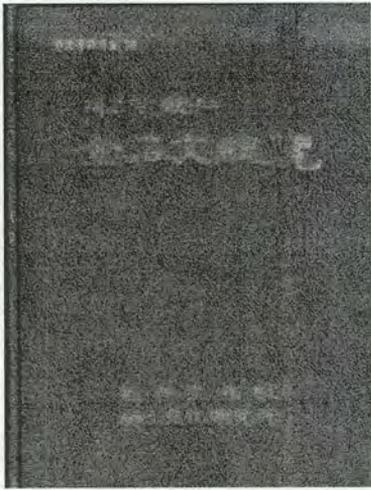
하였다. 4×6배판 226쪽 분량으로써 노동요(勞動謠), 내방요(內房謠), 연정요(戀情謠), 자장가, 향두가(香頭歌), 성조가(成造歌), 타령(打令), 동요, 내방가사 개화기가사, 효친가 등 노랫말을 채록하여 잊혀져 가는 무형의 향토구비문학 자료를 집대성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총190편으로 향토성이 짙고 이 자료를 구연한 사람들의 이름, 성별, 직업, 주거지, 구연일자 까지 기록하였으며 말미에는 향두가와 회방아 선소리 등을 채보하여 수록하였다.

3. 내 고장 옛 이야기

1985년 12월 20일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자료 제5집으로 출간한 책, 4×6판 206쪽 분량으로 이인영, 홍순석 공편으로 되어있다. 이 책은『내고장민요』를 수집, 채록할 때 함께 모아 놓았던 구전 자료들로서 용인의 전설, 전래동화 야담, 민담을 함께 수록하였다. 이 책 속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화롯가에 앉아서 어린 손자들에게 들려주던 옛이야기로 호랑이 도깨비, 효자, 도둑과 지명전설 등이 망라되어 아주 잊혀질 뻔한 용인의 구전, 구비 문화 자료로서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4. 내 고장 용인 금석문총람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자료 제18권으로 간행된 책, 향토사학자 이인영이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재직시 경기도 박물관 학예관 김성환과 공편으로 엮은 용인관내 금석문집. 이 책은 기존의 금석문집 중 일부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자료를 보완 수정한 것으로 금석문의 내용은 신도비를 비롯한 묘갈, 묘표, 묘지(墓誌) 등 112개의 비문을 수록하였다. 총 면수는 701쪽에 달하며 30여 장의 관련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편집 내용 중에 특이한 것은 원문과 번역문을 같은 지면 같은 행간에 배열하여 해역된 비문을 보면서 원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편집하였다. 포크로스 양장커버, 발행부수 1000부. 발행인 용인문화원장 이현규.

은 행간에 배열하여 해역된 비문을 보면서 원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편집하였다. 포크로스 양장커버, 발행부수 1000부. 발행인 용인문화원장 이현규.

5. 내 고장 용인 독립항쟁사

이인영의 저서, 광복 50주년기념 증보판으로 1995년 8월 15일 당시 용인군에서 간행 배포한 책, 저자가 용인의 인물을 연구하던 중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투신한 용인인사들이 많이 있음 발견하고 1986년부터 용인관내출신, 독립애국지사의 행적조사에 착수 3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1895년 을미의병 봉기이후 1907년까지 용인관내에서 봉기한 40여 명의 의병활동 행적을 찾아냈으며, 용인관내에서 출현한 항일의병 활동 회수만 하더라도 35·6회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국·내외에서 활약한 37명의 항일 애국지사, 독립운동가의 행적을 찾아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 당시 용인관내에서는 13회에 걸쳐 1만3천2백여 명이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사망 35명, 실종 139명, 부상 및 상해 502명, 수형자 65명 등 총 741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저자는 재판기록을 통해서 당시 용인관내에서 전개되었던 만세운동의 실상을 복원 전개하여 잊혀졌던 당시의 상황을 구감할 수 있는 자료를 이 책을 통해서 밝혀내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 고장 출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기로 결심하고 그가 주도하던 '용인향토사학회'에서 1989년 4월 20일 '용인군독립항쟁기념탑' 건립추진발기인회를 결성하였고, 그 첫 사업으로 문화원장(김정근)으로부터 650만원의 사업기금을 빌려 '내 고장 용인 의병항쟁 및 독립운동사' 제하의 책자 2천부를 간행, 이 책의 판매대금 10,744,000원을 조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문화원에서 빌려주었던 650만원의 대여금을 무단 회수하였고, 문화원장(박용익)이 바뀌자 문화원에 적을 두고 있던 향토사학회를 축출하고 향토사학회를 해체하면서 1991년 11월 8일 모금액 중 650만원을 제외한 잔액 4,176,000원을 인계함으로써 기념탑 건립계획은 무산되었다. 이 금액은 1989년 4월 4일부터 1990년 12월 30일까지 총 419명이 낸 협찬금, 성금, 책자의 판매대금이였다. 그러던 중 1995년 광복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일제잔재 청산과 기념사업을 전개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힘입어 마침내 용인 김량장동 326번지소재 공원에 '용인군독립항쟁기념탑' 건립계획을 승인 받아 기념탑을 건립하면서 '내 고장 용인 독립항쟁사'를 간행하였다. 이 책은 '내 고장 용인 의병항쟁 및 독립운동사'의 증보판이며, 독립항쟁 기념탑이 서게 된 것은 기존의 연구 자료에 근거되었음은 물론이다. 책은 지크로스 46배판, 406쪽 분량이다. 용인군수 윤병희, 용인문화원장 송재권.

6. 내 고장 용인 문화유산총람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자료 시리즈 제12권으로 간행된 책. 발행 부수 1천 2백권 국판 680쪽 분량이다.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즈음하여 이 해 1월 20일 출간된 이 책은 이인영이 저술하였다. 저자 이인영은 공직에 있으면서 30여 년 간 독자적



으로 향토문화를 연구하던 중, 선사시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용인지역에 산재한 갖가지 유물유적을 조사 연구 한 것을 이에 집대성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까막딱다구리를 발견하여 천연기념물 제242호로 지정케 한 사실을 비롯하여 개국공신 남은 분재기 및 왕지(보물 제1173호), 오명항 영정 및 공신교서(보물 제1177호), 우수 영정(보물 제1176호) 등을 발견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받

았을 뿐 아니라, 문수사지 마애보살상 등 도(道) 지정 및 용인시 향토문화유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화재가 그의 손을 통해 거듭 나거나 복원 및 보존하는데 기여하였다.

내용을 보면 구석기~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고분, 사적지, 요업지, 성지, 봉수지, 사지, 관아지, 서원, 향교, 가옥, 누정, 재, 사우 등 건축물, 서화, 초상화, 불상, 석탑, 부도, 공예, 민속자료 등 미술분야, 전적, 서적, 고문서, 기타 향사기록류, 삼강행실, 유물유적, 분묘, 석비 등 기념물 등이 망라되어 관내 각급 학교에서는 향토문화 이해의 교본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정신문화연구원으로부터도 우량도서로 인정받아 많은 관계 전문가들이 이를 구입하여 용인 지역사회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 자료도 과거와 현재의 실상을 사진으로 고증하여 이미 멸실, 도난, 훼손된 자료도 이 책을 통하여 고증되고 있다. 한 마디로 이 책은 필자의 생애와 함께 고장 문화 연구에 필생을 바쳐온 향토문화 연구의 결정본이라 할 수 있다. 발행부수 1,200권. 발행인 용인문화원장 송재권.

7. 내 고장 용인 인물총람

1995년 12월 5일 향토문화자료 제10집으로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한 책. 이 책은

용인과 연고가 있는 고금의 인물들을 총 망라한 책으로 4×6판 364쪽의 분량으로서 용인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금병윤, 노승식, 박상돈, 이웅준, 이인영, 최희면 등 6인이 공동 집필하였다.

인명은 가나다순으로 편집되었으며 출생, 생거, 사거, 우거, 인물과 용인에 영향을 끼친 인물, 독립애국지사 서원 원장을 지낸 인물, 수령 등 고금의 역사적 인물과 충효열 행적에 관한 인물 등 467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 인물 중에는 용인을 빛낸 충신, 효자, 열녀, 애국지사, 독립운동가, 교육, 문화, 예술인 등의 인적 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본문 머리에 묘, 출생, 급제, 생거, 비, 정려문 등 관련 자료를 명기하였다. 표지에는 용인출신 조선시대 화원 소담 이재관의 '송하처사도'가 삽화로 되어 있다. 후에 용인이씨 문중에서 자체 복사본을 제본하여 문중에 배부하기도 하였다. 발행부수 1000권. 발행인 용인문화원장 송재권.



8. 내 고장 용인 지지총람



이인영이 엮은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자료 제8권으로 간행된 책. 4×6판 334쪽 분량으로 1991년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하였다. 향토사학가 이인영에 의하여 엮어진 이 책은 읍면, 행정, 법정, 자연마을, 산, 하천, 고개의 명칭과 수리적 위치, 1983년 한글학회에서 간행된 지명 총람 중에서 용인 읍, 면, 리, 동, 자연마을의 소지명, 속지명, 지명유래, 천(川), 골(谷) 명칭과 1987년 10월 10일 경기도에서 법정, 행정, 자연, 마을, 단위의 지명, 유래를 수

록한 내용, 조선시대 용인, 양지현의 산, 곡, 들, 보, 하천, 동, 리, 촌명과 령(嶺), 치(峙), 현(峴), 주막, 점(店), 토산품명을 수록한 당시의 지명, 행정구역 명칭, 1912년(명치45) 5월 25일 간행된 구한국 지방행정구역명칭 일람표, 1914년 용인, 양지군이 통합되어 용인군이 되었을 당시 변경된 전국행정구역 개칭명과 편입, 개폐지역 현황을 참고 할 수 있는 조선 도(都), 부(府), 군(郡), 면(面), 개정구역표, 1917년 간행된 신구대조 조선 전 도, 부, 군, 면, 리, 동의 명칭 일람표를 수록하였고, 기타 정조 13년(1789)에 집계된 호구 총수에 나타나는 행정구역 명칭, 기타, 동국여지지, 용인군 하천 일람표가 수록되어 있어 용인의 지명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이 책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 특히, 이 책은 남사면 아곡리의 명칭을 둘러싸고 죽산 음씨와 안동 권씨 집안 간에 있었던 분묘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소송 사건을 종결짓게 하는 일화도 간직하고 있다. 발행부수 1000권. 발행인 용인문화원장 김정근.

9. 내 고장 용인 지명 · 지지(地名 · 地誌)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한 '향토문화자료총서' 제21권. 이인영, 김성환 공편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내 고장 용인 지지총람'의 증보판의 성격을 띠고 간행 되었는데 종전에 발간된 '지지총람'의 수요가 증가되어 기존의 자료와 삼국사기로부터 조선시대의 읍지류에 이르기 까지 용인, 양지, 죽산 등의 각종 지지자료를 발췌하여 수록하였고, 각종 시대별로 작성된 읍지류의 이동(異同)사항을 분석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용인군 당시 읍면지도와 군지도, 조선시대의 지도 등을 수록하여 행정구역 변천 이전의 지리적 위치를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이다. 포크로



스 양장제본이며 면수는 700쪽이다. 2110년 9월 1일 발행되었다.
발행인, 용인문화원장 이인영.

10. 내 고장의 얼(유물유적 편)

향토문화자료 제6집으로 간행된 책. 4×6판 322쪽 분량인 이 책은 용인문화원에서 간행되었으며 이인영의 편저이다. 이 책은 이인영이 연구 조사한 향토문화유산을 집대성한 자료집으로 1997년 간행된 문화유산총람에 앞선 예시본이라 할 수 있는데 홍순석의 내 고장의 얼 인물 편에 이어 속간된 시리즈물이다. 내용 중에는 용인 관내에 산재한 영정 자료를 칼라 사진으로 수록하여 초상화 연구가 용인에서 최초 시도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발행부수 1,000권 발행인, 문화원장 김정근.



11. 내 고장의 얼(인물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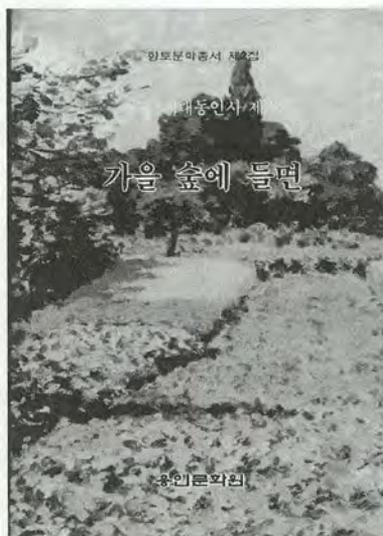
용인 향토문화자료 권으로 간행된 책. 1984년 11월 30일 용인문화원에서 간행되었으며 홍순석이 집필하였다. 4×6배판 200쪽 분량의 이 책에는 용인읍지, 용인군에서 간행된 향토문화와 전통 등 기존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출생, 주거, 사거, 인물 순으로 선정하고 효열 인물 등을 약전으로 옮겼다. 이에 수록된 인물은 모두



108명으로서 1995년 용인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누락 인물을 보완, 내 고장용인 인물 총람으로 속간되었다. 발행부수 500권, 발행인 용인문화원장 김정근.

12. 서정 3세대 동인문학지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한 향토문학총서로 용인 문화원 문학회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간행한 시집이다. 창간호 제1집은 '옷을 벗는 설음' 제2집은 '김량천에 솟는 달' 제3집 '가을 숲이 들면' 등의 제목으로 속간되었다. 서정 3세대 회원들은 용인에 거주하는 향토시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박상돈, 김종경, 이종대, 장영옥, 박수자, 임준규 등이었다. 제1회부터 3회까지 발행된 후 중단(1994년)되었고, 문화원 지원이 중단되자 이들은 용인문학회를 만들어 활동해 오고 있다. 후에 이인영이 문화원장을 맡게 되자 용인문학회를 문화원 회원단체로 영입하여 지원을 하였으나 원장이 바뀌자 다시 자생 단체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책은 문고판으로 5백부씩 간행되었다. 이 중 박상돈 시인의 작품을 보면 '용덕사에서' '할매봉' '복지용인' '내 가슴의 고향' 등 '내 고장 용인' 향토의 정서를 시로 읊긴 작품들이 많이 눈에 띈다. 1994년 발행. 발행인, 용인문화원장 송재권.



13. 용인군 시사연표

오늘 또는 현재의 현상이나 사회의 움직임, 지역사회의 동정과 같은 사소한 일들을 무심결에 지나치기 쉽고 또 사건, 사고와 같은 일들도 시간이 흐르면 소멸되고

망각되기 쉬운 일이다. 역사는 흘러간 시간, 지나쳐 버린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 놓은 것들이며 이것은 후세 사람들에 의하여 평가되고 가치가 규명된다.

이 책에 수록된 기록들은 옛 문헌들을 찾아 행정 연혁의 변천으로부터 현재 사회에서 전개 되는 일상의 기록들이지만, 이와 같은 자료를 모아보면 훌륭한 역사의 기록물이 될 것이라는 데에 착안하여 인영이 용인군청 근무 당시 자료를 모아 간행한 단편적인 기록물이다.



이 책을 통해서 1년 또는 10년 단위를 묶어서 평가한다면 사회의 발달과 변천과정을 여실히 조명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현령, 현감들의 재임기간과 그들의 공과를 일목요연하게 헤아려 볼 수 있겠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동학농민항쟁, 그리고 조선조 말 의병활동, 3·1 독립항쟁 등 선조들의 궤적과 개화기 각급 학교 태동과 근대사회형성의 맹아기 현상 등을 더듬어 볼 수도 있다.

또 하나 수많은 서적 가운데 군 단위의 연표가 활자화되어 단행본으로 간행된 예로서는 최초의 기록물이다. 처음에는 용인군에서 5백부 한정판으로 간행하여 배포하였으나 이의 간행이 알려지자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 용인문화원에서 추가로 재판 배포하였다. 향토사료집을 시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재판한 예로서도 처음의 일이었다. 1994년 발행, 국배판 258쪽, 발행부수 1000부, 발행인, 용인군문화공보실장 이용만, 용인문화원장 송재권.

14. 조선시대 용인 · 양지 사료집

이 책은 향토사를 연구하기 위해 1986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중 용인현과 양지현에 관한 기록을 발췌, 초록해 두었던 것으로 태종으로부터 철종시대까지의 기



록을 엮은 것이다. 처음 이인영이 “조선시대 읍호강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조서왕조실록을 섭렵하는 과정에서 당시 조선 시대 용인·양지 지역사회와 관련된 421편의 왕조실록 기사를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부터 행정, 인사, 군사, 농업, 교통, 산업, 신분제도, 신앙, 천기, 사법, 치안, 외교, 윤리강상, 예속, 신앙 및 각종 관행 등을 엿볼 수 있는 사료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용인의 역사를 보다 더 구체적이고도 완벽하게 정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용인문화원에서 출간하였다.

이에 수록된 421편의 기사는 역대 임금의 묘호와 연기와 일자별로 편집하여 가급적 명료하게 발췌하고 한자를 병기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국판 지크로스 321쪽. 발행부수 1000부. 2001년 발행. 발행인 문화원장 이현규.

15. 용인군지(龍仁郡誌)



용인군의 예산을 지원받아 용인문화원 주관으로 편집 간행한 책으로서 1990년 당시대의 군세는 물론 그 이전의 역사, 정치, 경제, 산업, 문화 등 제분야를 총체적으로 집대성한 책이며, 해방 이후 용인군에서 최초로 간행한 관판본의 지지류임.

‘용인군지’는 1986년에 착수하여 1990년 완간되기 까지 4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 기간에 조사 수록된 방대한 자료는 1,700쪽의 분량이다. 사계 전문가 41명의 집필위원이 참여하였고, 감수

교열을 거쳐 완성도 높은 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놓았다.

총 9편 51장과 부록으로 편집되었으며 3백여 매의 사진이 수록 되었다. 특히 부록에는 옛 문헌자료와 제영 기문, 지지류가 합본되어 있고 연표가 있어 용인의 과거를 시대별, 연도별로 구감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다.

표지는 포크로스 양장제본이고 면수는 1,708쪽의 분량이다. 발행처는 용인군이고 '용인군지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남한지'나 '세종실록지리지' 또는 '동국여지승람' '읍지' 류와 같은 지지서는 후세에 전해질수록 그 진가가 돋보이게 된다. 5백년의 왕조실록을 남길 정도의 기록문화를 간직한 우리 민족이었지만, 해방이후 그 문화가 점차 소원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용인군지가 발행된 것을 시작으로 용인관내에서는 풍부하게 많은 향토지가 간행되어 대단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용인군지는 용인에서 그 효시가 되었다고 본다. 강진갑, 박형진, 김창현 등이 상임편집위원을 맡았다. 제자(題字)는 무곡 최석화가 썼다. 발행처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0년 2월 발행되었다.〈참고: 용인군지〉

16. 용인지역 구비전승

용인이 수도권 남부에 위치하면서 급격히 도시화 되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용인도 설화나 구전되어 온 옛 이야기들이 소멸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착안하여 용인대학교 강현모, 박종수 교수와 용인문화원 이용준 사무국장 등이 용인의 구비전승문화를 채록하여 기록으로 남기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문화원의 향토문화 자료 시리즈물로 간행할 것을 계획하게 된다.

한국정신문화원에서 간행한 '한국구비문학대계' 편에 1책 정도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고, 이인영, 홍순석이 공편한 구비설화 자료집인 '내 고장 용인 옛이야기' 편이 나오기는 했으나



“부족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원삼면, 백암면 지역의 동부권을 시작으로 1996년 5월 그 첫 권인 “동부지역구비전승”의 간행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주로 마을에 구전되어 오는 설화나 민요, 전설 등을 조사 구연자의 구어체로 기술되어 있다. 그 후 1997년 5월에는 포곡 모현 등지의 “북부지역구비전승”을 출간하였고, 1998년 8월에는 이동, 남사면을 대상으로한 “남부지역구비전승을” 1999년 9월 기흥 구성 수지 지역으로 대상으로 한 “용인서부지역 구비전승” 그리고 2000년 7월에는 당시 용인읍지역과 양지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용인 중부지역 구비전승”을 간행함으로써 구비문화자료집을 집대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자료는 조사대상 각 리, 마을별 개관을 쓰고 제보자의 성명, 나이, 성별, 조사 장소, 조사 날짜 등을 명시하였다.

이 책들은 각각 550쪽 분량으로 발행되었으며 각급 기관, 대학, 박물관 등에 배포되었다. 발행처 용인문화원, 발행인 송재권, 이현규.

17. 내고장 용인

향토문화자료집, 이인영이 저술한 책. 1984년 7월 15일 문학사상사에서 간행하였다. 4×6배판 활자조판으로 된 이 책은 용인군의 연혁과 유래를 최초 정립하여 서두에 수록하였고 용인의 지리적 특성, 도로, 하천, 사거용인(死居龍仁) 유래, 전설 등이 수록되었다. 특히 역사적으로 민족이 수난을 겪은 몽고침입, 임진왜란, 병자호란, 3·1운동 등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중대 전란사 중 용인에 관한 사실 등을 최초로 수록되어 용인의 지정학적 위치가 새롭게 부각되었다. 한 때 ‘용인을 말하려면 이 책을 봐야 한다.’는 촌평도 있었으나 이인영의 초보적인 향토문화 연구 단계



에서 간행된 것으로 수필, 해학과 풍자 등이 284쪽 분량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 표지 삽화는 조선시대 중·후기의 양지현 관내도이다. 발행부수 2000권.

18. 구성면지(駒城面誌)

1998년 용인문화원에서 용인시 구성면지역의 실상을 기록으로 남긴 지지(地誌), 구성면은 본래 용인현의 치소가 있던 구 용인지역을 말한다. 2000년 9월 1일 구성면이 읍으로 되었다가 2005년 용인지역 행정구역 개편 때 기흥읍과 합쳐서 기흥구에 편입된 지역이다. 용인의 서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따라 구성면의 변화 추세를 예견하고 당시대의 현상(현황)을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용인문화원에서 용인시의 지원을 받아 간행하였다. 1년여에 걸쳐 30여 명



의 집필진이 참여하였다. 1권 1책이며 표제는 '구성면지'이다. 크기는 가로 19.5cm 세로 26cm이다. 1018쪽의 분량에 16장 46절로 항목을 구분하였다. 주 내용을 보면 구성면의 연혁에 이어 유래, 자연환경, 정치, 행정, 사법, 치안, 산업경제, 복지사회, 교육·문화·예술·종교·인물·민속·통과의례·부록 등으로 대분류 되었고 각 장마다 절, 목을 두어 구성면의 모든 사항을 집대성하였다. 구성면지의 기록은 면 당시의 향토적 실상을 기록으로 보존하여 후세에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제자(題字)는 당시 구성면장 김동해가 썼다. 발행부수 1000권. 발행인 용인문화원장 송재권 <참고 : 구성면지>

19. 기흥읍지(器興邑誌)



2000년 현재 기흥읍의 실상을 기록으로 남긴 책. 기흥읍은 용인의 서부지역에 위치한다. 행정구역은 11개 법정리를 관할하였으나 시 승격이후 급진적으로 도시화가 되면서 지형이 바뀌고 지명이 변하는 등 숨가쁜 전환기를 맞게 된다. 이에 앞서 당시대의 실상을 기록으로 전하고자 용인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포크로스 양장제본. 1,380쪽 분량이다. 내용은 총 15장, 48절로 구성되었고, 총설, 환경, 역사, 정치, 산업, 교유, 종교, 언론, 출판, 문화, 예술, 민속, 세거성

씨, 부록 순으로 편집되었고, 25명의 전문분야로 나누어 집필하였다. 이 책을 편찬할 당시만 해도 기흥읍의 읍세는 지방의 웅만한 일개 군의 규모를 능가하는 인구와 세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대학, 연수원, 산업시설과 민속촌, 경기도 박물관 등의 관광문화 자원과 편리한 교통의 입지 등 입지적 조건 때문에 급속하게 발전하다가 용인군이 시로 승격하게 되자 5개 동으로 분할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기흥읍의 실상을 기록으로 보전하였으므로 이 책은 당시대의 향토사료로서의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제자는 김주익이 썼다. 발행부수 1000권. 발행인 용인문화원장 이현규 《참고; 기흥읍지 2000. 용인문화원》

20. 양지면지(陽智面誌)

용인문화원에서 시리즈로 간행하고 있는 읍·면지의 하나, 양지면의 과거 현재의 자료를 집대성한 향토지. 읍·면지의 간행은 전국에서 최초로 용인문화원이 시도하고 있는 전현대의 사료와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기록으로 정리코자 하여 추진하고 있는 향토지의 하나로서 구성, 수지읍지에 이어 세 번째로 간행되었다.

양지면은 본래 조선시대에는 양지현의 관아가 있던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용인군과 통합되기 이전까지는 일정 구역을 관할해 온 행정구역의 중심지였다. 그



리므로 양지면은 향토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용인현의 치소였던 구성면 못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포 크로스 양장제본으로 면수는 1,350쪽의 분량이다. 편집은 총 15장으로 편제하였고, 내용은 총설, 환경, 역사, 정치, 산업,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언론, 출판, 유물 유적, 민속, 놀이, 성씨와 인물, 부록 순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부록에서는 '양지읍지' 일제시대 '양지면의 역대관리록' 양지현에 관련된 조선왕조실록 자료 등을 발췌 수록한 '양지현 사료' 기타 영

조연간의 신정사례(新定事例) 등이 수록되어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향토지이다. 양지면지는 조선시대 군현에서 간행한 현, 읍, 군지와 같은 일종의 기록물로서 오늘의 실상이 후세에 전해지는 하나의 기록문화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읍·면지를 간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용인이 그 시효가 되리라고 보며, 이 자료는 용인시의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발행부수 1000권, 2001년 발행, 발행인 용인문화원장 이현규 <참고 : 『양지면지』>

21. 수지읍지(水枝邑誌)

수지지구는 한 때 난개발의 대명사가 될 만큼 변화 발전을 거듭한 지역이다. 용인의 북서부지역에 위치하면서 분당 수원 등 대도시와 인접하고 주거지로서 도시가 발달되어 예전의 모습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또 용인이 시로 승격되고 구제가 생길 때 수지읍 지역이 수지구가 되었을 만큼 인구가 밀집되었다. 개발과 도시화로 산천초목이 모두 제 모습을 잃었으나 오직 이 한권의 책의



기록에 수지의 옛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책은 포크로스 양장제본으로 쪽 수는 1410면이다. 용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2002년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하였다. 목록은 14장으로 구성되었고, 수지읍의 구조적 특성에서는 인구구조, 공간구조, 사회구조 등의 특성을 다룬 것이 여타 읍지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멸실된 지명과 마을별 연혁과 유래 등은 이 기록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집필진은 각계 전문분야별로 21명이 참여하였다. 제자는 일정 김주익이 썼다. 발행부수 1000권, 발행인 용인문화원장 이인영《참고 : 수지읍지, 2002년 용인문화원》

22. 모현면지(慕賢面誌)



모현면의 현대지역상을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긴 책. 지 크로스 양장제본이며, 1400 면으로서 목차를 보면 종전의 형태를 벗어나고 있다. 편수는 9편으로 나누고, 편 이하에 장과 절을 설정하여 세부적으로 집필, 편집되었다. 편 별 내용을 보면 1편은 삶의 터전으로 환경과 풍수 지리분야를 다루었고, 삶의 내력에는 역사와 근대사를, 삶의 자취에서는 선사유적, 건축유적, 문화유산 등을 취급하였고, 삶의 주체에서는 성씨와 인물, 삶의 틀에서는 정치, 경제, 산업을, 삶의 내용에서는 종교, 교육, 문화, 예술을, 삶의 방식에서는 생활과 민속, 마지막에서는 구비전승을 다뤘다. 기록은 후세를 위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모현면지는 그동안이 지역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향토 사료의 정보력을 후세에 전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발행부수 1000권. 발행인 용인문화원장 홍재구《참고 : 모현면지, 용인문화원, 2003》

육, 문화, 예술을, 삶의 방식에서는 생활과 민속, 마지막에서는 구비전승을 다뤘다. 기록은 후세를 위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모현면지는 그동안이 지역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향토 사료의 정보력을 후세에 전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발행부수 1000권. 발행인 용인문화원장 홍재구《참고 : 모현면지, 용인문화원, 2003》

23. 포곡면지(蒲谷面誌)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한 포곡읍의 실상과 문물을 기록한 향토지. 처인구 포곡읍은 용인시 29개 읍면동 중의 하나로서 향의 치소가 있던 곳이라고도 한다. 2005년 10월 30일 읍으로 승격되었고 9개의 법정리에 18개의 행정리를 통할하고 있다. 특히 인문관광 시설인 에버랜드의 전신인 용인자연농원이 들어서면서부터 관광지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다. 이곳은 모현면과 더불어 날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포곡면지』는 2000년대 전반기의 실상을 기록한 지지서로서 과거와 현재를 망라한 풍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지 크로스 양장제본으로 면수는 1,180쪽에 이른다. 읍면지의 간행은 2000년대 전기는 물론 용인시 각 읍면의 현재 실상을 세세히 기록함으로써 향토 사료의 기초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읍면단위로 세분되어 조사된 세세한 기록은 지방 사료의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발행부수 1000부. 용인문화원 부설향토문화연구소에서 편집 간행하였다.〈참고 : 포곡면지〉



24. 원삼면지(遠三面誌)

2005년 용인문화원이 원삼면의 실상과 문물을 기록으로 남긴 책. 향토문화자료 총서로서 선시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삼면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고 원삼지역의 삶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였으며 원삼지역 12개 리를 서술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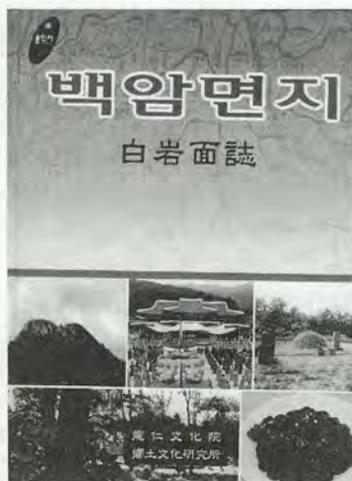
으로 하였다. 이 지역은 용인의 개발 여파에도 불구하고 성장 속도가 가장 늦은 지역으로서 향토적인 색채와 삶의 모습이 가장 원형적으로 보존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당시대의 현상을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용인문화원에서 2005년 간행하였다. 목차는 총 7편 19장이며 10여 명의 집필진이 참여하였다. 내용은 삶의 터전, 삶의 내력과 자취, 삶의 주춧돌, 삶의 틀, 삶의 방식, 삶의 이야기 순으로 되어 있고 농촌문화의 자취가 비중 있게 취급되었다. 지 크로스 양장본으로 1,022쪽 분량이다. 발행부수는 1000부이다.〈참고 : 원삼면지〉

25. 백암면지(白岩面誌)

처인구 백암면의 실상과 고금의 향토자료를 집대성한 지지서. 2006년 12월 20일 용인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하였다. 백암면은 용인의 동부지역에 위치하여 아직도 농업중심의 틀에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백암지역은 이로 인하여 정체된 전통 생활이 온전히 보존되어 온 지역으로서 향토사 연구의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게 된다.

급속히 도시화 되어 지형지물이 바뀌고 산천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용인의 서부지역의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백암지역은 수려한 자연과 농경사회의 여지가 남아 있어 이의 현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시급한 실정이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용인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고장이고 부농명촌으로서 인심이 좋았던 지역적인 특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분묘나 지역의 인물, 지명, 또는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사적인 측면과 민속부분은 여타 읍·면지나 용인시사, 또는 종전의 용인군지에 수록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발굴된 것은 읍·면지 기록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다고 평가된다. 지크로스 하드커버 1067쪽. 발행처 용인문화원. 발행부수 1000부.



26. 남사면지(南四面誌)

2008년 용인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읍·면지 중의 하나. 남사면은 용인의 남부지역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이동면, 서쪽으로는 평택시, 남쪽으로는 안성시와, 그리고 북쪽으로는 오산시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용인의 원삼 백암 지역과 함께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으나 면의 서쪽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남으로써 이 지역에도 산업지역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유통단지, 첨단산업단지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오산 지역 신도시 건설과 이의 여파로 남사면 북리와 아곡리 완장리 일대에 개발의 조짐이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시대적 변화에 젖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집필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존의 문헌자료나 기록보다도 현장성을 중시하고 지명, 인물, 민속이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사적 측면의 조사 연구에 충실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용인의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남사지역의 새마을 사업과 새마을 운동에 관한 자료를 심도 있게 조사 수록한 것은 여타 읍면지에서 볼 수 없는 성과였다고 보여진다. 속표지는 북한에서 그려진 처인성대첩의 기록화를 삽화로 썼다. 지크로스 하드커버 제본이며 994쪽 분량이다.

27. 이동면지(二東面誌)

용인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읍·면지 중의 하나. 이 책은 2007년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자료 총서 제25권으로 이동면의 현대와 고금의 문화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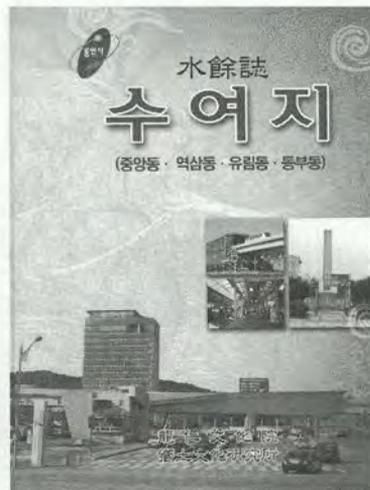
록한 지지서이다. 편찬 내용을 보면 각 집필위원 별로 문화, 예술, 정치, 행정, 역사, 경제와 산업을 비롯하여 식생활, 의생활, 종교, 교육, 상공업, 세거성씨와 인물, 분묘, 지명유래, 문화유적과 민속 구비전승 등의 자료를 집대성 하였다. 집필위원은 사계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전 이동면장, 시의원 등의 지역의 인사로 구성된 편찬위원회와 편찬실무위원회, 교정 교열 위원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동면은 용인의 남쪽 지역에 위치하며 개발

로 인한 여파가 상대적으로 적고, 용인지역의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지역으로서 특히 이동면 서리의 고려백자요업지를 간직한, 우리나라 도자사에 있어서는 빼 놓을 수 없는 매우 유서 깊은 고장 이라는 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한덕골과 사리치를 중심으로 한 천주교 성지가 있고, 용덕저수지 어비리 저수지 등은 농촌의 풍요를 구가하는 수리시설이자 낚시터로도 유명한 고장이다.

또 신라 때의 사찰지로 알려진 용덕사와 동도사의 신라 후기 석탑 등 유서깊은 문화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필진들은 현장 위주의 자료를 수록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흔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지크로스 하드커버, 987쪽 분량이며 448매 분량의 도표와 사진 등이 수록되어 있다.

28. 수여지(水餘誌)

용인시 관내 읍면동의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읍면지 발간 사업은 1998년 <구성면지>를 시작으로 기흥읍, 수지읍, 양지면, 모현면, 포곡면, 원삼면, 백암면, 이동면, 남사면 등의 읍면지 발간으로 향토문화자료를 체계화하였고, 2009년 마지막으로 <수여지>를 발간함으로써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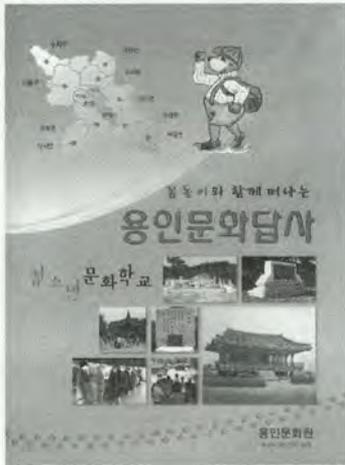


년간 진행되어 온 읍면지 발간사업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 사업은 용인시의 향토문화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함으로써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청소년 및 시민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에 간행된 '수여지'는 1104페이지 분량으로 11년 동안 이어진 읍면지 편찬사업이 막을 내리게 됐다. <수여지>는 <수여면지>라는 의미로 용인시가 시로 승격되기 이전의 용인읍 지역의 옛 이름을 따온 것이다. 옛 용인읍이 용인의 정치행정 및 사회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여지>에는 특히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 했다는 중요한 의미의 평가를 받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1편에서는 삶의 터전과 내력으로 자연과 지리, 역사, 지명 유래 등을 싣고 있다. 2편에는 삶의 자취로 문화유산을 다루고 있다. 유적 및 보호수를 비롯하여 석비 기념탑, 유교유적, 분묘를 다루고 있다. 3편에는 삶의 주체로 세거성씨와 인문을 시도 있으며 4편에는 삶의 틀로 정치행정, 보건의료, 복지, 경제산업, 사회단체 등을 다루고 있다. 5편에는 삶의 내용으로 종교, 교육, 체육, 문화예술, 지역언론을 다루고 있고 6편에는 삶의 방식으로 생활과 민속을 조사하여 싣고 있다. 7편에는 삶의 이야기로 구비전승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을지 특집으로 버드실 마을을 소개하고 있으며 김량시장, 수여선 협궤열차, 일제시대의 용인 등을 담고 있다. 집필자는 정양화, 홍순석, 이종구, 김장환, 김태근, 이상표, 남기주, 김지혜, 송무경, 이을영, 진숙, 정연학, 류재인, 박선영 등이다.

29. 꿈돌이와 함께 떠나는 <용인문화답사>

용인문화원에서 2008년부터 용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학교' 교재 겸 청소년을 위한 용인지역 문화유적지 답사 안내서로 2009년 발행되었다. A4사이즈에 올 컬러로 160페이지 분량의 <꿈돌이와 함께 떠나는 용인문화답사>는 용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동부지역에는 백암면, 원삼면, 양지면을, 서부지역에는 수지구와 기흥구를, 남부지역에는 남사면과 이동면을, 북부지역에는



모현면을, 그리고 중부지역에는 처인구 4개동(중앙동, 동부동, 역삼동, 유림동)을 배치하여 상세한 설명과 함께 유적지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의 특성을 지도와 함께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유적이거나 각 시설들에 대하여 다양한 캐릭터와 사진을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또 학습결과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풀이를 첨가하고 있다. 집필자는 동부지역에 진숙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과장, 서부지역에 정

기숙 용인향토문화연구위원, 수지구에 최상숙 용인시문화관광해설사, 기흥구에 김성자 용인시문화관광해설사, 남부지역에 황귀숙 용인시문화관광해설사, 북부지역에 조명숙 용인향토문화연구위원 등이다.

30. 용인시사(龍仁市史)



1996년 용인군지를 편찬할 당시만 해도 용인군의 인구는 20만 정도였다. 그간 10년이 경과하면서 용인시는 3개 구(區)로 분할되고 2007년 8월 현재 80만이 넘는 시로 발전하기까지 엄청난 사회변동을 겪었다. 용인시사는 용인군지 이후 15·6년이 경과되면서 그동안의 변천사를 보완적으로 기록한 자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 크로스 양장제본이며 8권에 총 면수는 9,625쪽에 이른다. 집필에는 연인원 18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2002년에 착수하여 약 4년여의 편집기간을 거쳐 완성되었지만 편집기

간에도 용인은 급성장, 초고속 발전상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나날이 사회지표가 변동하였다. 용인시사 1·2권은 '역사와 문화유산' 편을 다루었고, 3·4권에는

‘사람과 마을’ 5·6권에는 ‘현대사회’ 편을 다뤘다. 그리고 7·8권에는 ‘용인의 현대사연표’를 수록한 것으로서 한 면에 정치, 행정, 경제, 건설을, 다른 한 면에는 사회, 보건, 복지, 문화 등으로 내용을 분류하고 1990년 1월 3일부터 2000년 12월 29일까지의 각종 사회동향을 세세히 기록하였다. 가장 큰 성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이 기간에 ‘고려시대의 용인’을 비롯한 11권의 ‘용인시사 총서’가 부수적으로 간행되었는데 용인의 역사와 사회, 문화상 등을 개별적으로 구체화 시켰다는 데에 있어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 용인시사》

31. 용인의 옛 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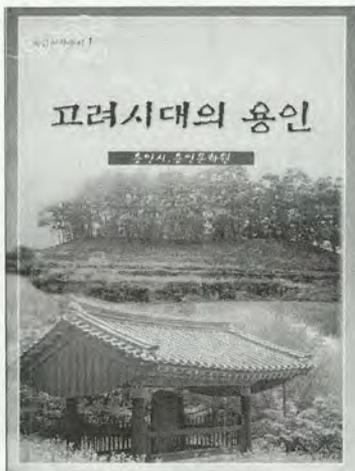
용인시사총서 제 2집으로 간행된 학술조사자료 보고서, 용인지역의 활발한 개발 여파로 각 지역에 분포하는 산성, 불적, 요업지, 분묘, 기타 문화유적이 훼손되거나 멸실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른 구제 발굴이 수없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유적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이에 착안하여 1998년 12월 용인문화원에서는 중앙승가대학교에 의뢰하여 서봉사지, 문수사지, 박곡사지 등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조사 사업에 착수하여 1999년 4월 30일



이의 간행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용인지역의 불적자료 조사는 향토사학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이로 인하여 전문기관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용인최초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사보고서는 ① 문헌조사와 구조조사를 통해 과거의 유물과 기록을 정리하였고, ② 지표조사를 통해 사역(寺域)의 범위를 확인하고, 확인되는 사역들에 대하여 측량조사를 병행하였다. ③ 확인된 석조물에 대하여는 1/20, 1/10으로 실측하고 필요에 따라 탁본으로 자료를 수록하기도 하였

다. 확인된 유물은 정밀 실측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④ 확인된 축대나 기단은 최대한 실측하고 남아 있는 현상을 통해 사찰의 규모와 사역을 밝혔고 ⑤ 이렇게 조사 고증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학술자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외에도 그동안 밝혀진 바 없는 백암리의 용주암지의 조사를 비롯하여 부수적으로 두창리의 삼층석탑과 미평리의 미륵불, 백봉사지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 용인의 불교사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 귀중한 단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32. 고려시대의 용인



1998년 12월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한 용인 시사총서 제1집. 향토사를 연구함에 있어 강단의 사학자들과 재야의 향토사학자들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종전의 문제점에 착안, 용인문화원과 용인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들 간의 학술적인 교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우선 '고려시대의 용인'이라는 명제를 걸고, 용인문화원에서는 고려시대의 '처인성 승첩'에 관한 논제를 비롯하여 '서리 백자요지' '서봉사지' 등의 고려시대 대표적인 사적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 책은 1998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고려시대의 용인" 학술대회에 앞서 학계와 재야학자들의 논고를 수록한 것이다. 편집 내용을 보면 제1부는 차용걸교수의 "처인성 터의 구조와 성격" 주채혁 교수의 "살리타이와 몽골-고려전쟁"에 관한 내용, 윤용혁 교수의 "용인 처인성에서의 대몽승첩"에 관한 발제와 향토사학자인 이상학의 "13세기 몽골군복에 관한 연구" 이인영의 "몽고침입과 처인성승첩 소고"에 관한 보론을 수록하였다. 제2부에서는 김재열의 "서리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의 의의" 엄익성의 "고려시대 고분에 대한 일고찰" 양정석교수의 "용인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에 대한 고찰" 등의 발제가 수록되었고, 심정보, 이익주,

강경숙, 김영원, 길경택, 이병욱 교수 등이 본 학술대회의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제3부에서는 발제 내용과 토론요지를 녹취하여 게재하였다. 책의 면수는 390쪽이며 발행부수는 1000부이다. 발행처, 용인문화원, 용인시.

33. 용인의 도요지



용인시사총서 제 3집으로 1999년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한 책. 용인은 경기도내에서 광주지역 다음으로 요지의 분포도가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백자의 경우 광주지역에는 왕실과 중앙의 중산층에 공급하던 관요업지가 밀집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용인지역에는 재지적(在地的)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주변지역의 수요에 따라 생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요업지들이 산재해 있고, 지방요인 청자요업지와 분청사기 요업지도 수 개소 분포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용인은 주변에 인접한 시군보다 급속

한 도시화의 추세에 따라 이러한 유적들의 보존 방안이 시급한 실정에서 이와 같은 요업지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조사된 요업지는 호동 3개소, 운학동 2개소, 해곡동 1개소, 지곡지역 3개소 수지지역 2개소, 구성지역 1개소, 양지지역 4개소, 이동면지역 12개소, 원삼지역 6개소, 백암지역 5개소, 남사지역 2개소 등 41개소가 조사되었다.

도요지 조사는 김재열 책임조사원(현, 경기도 박물관장)을 비롯하여 이종구, 마순관, 이남규 등 3명의 조사위원, 전승찬, 현문필, 양정석, 노대식 등 4명의 조사원, 김두권, 최철희 등 2명의 조사보조원, 이화정, 허정욱, 김혜영, 신시내, 정경아 등 5명이 참여하였다. 내용은 도요지 별 위치, 실측자료 및 사진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면 수 280쪽, 발행 부수는 1000부이다.

34. 용인의 분묘문화



용인시사총서 제 8권으로 2002년 2월 발행되었다.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조사된 용인의 분묘문화는 그동안 경기도 지정 문화재나 용인시 지정 향토유적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던 한계를 벗어나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조성된 분묘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조선시대 분묘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분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격적으로 분묘만을 대상으로 조사 수록된 자료는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조사 방법도

기존에 출간된 용인지역의 분묘 관련 문헌과 현지의 탐문조사를 통해 현장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새로운 분묘유적들이 조사되었고, 기존의 잘못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정정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용인지역 전역에 산재해 있는 분묘유적에 대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통 묘제연구의 필수적인 기초자료로서 그 조사 의의가 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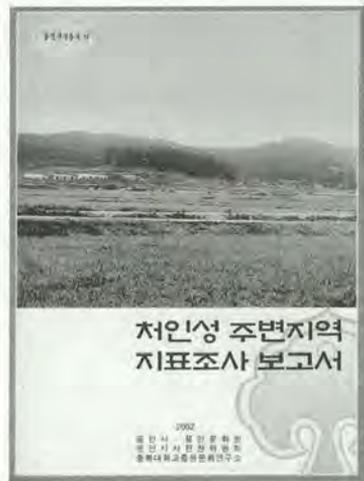
이와 같이 분묘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문화사적으로 정리한 것은 향토사학계에서는 처음 시도된 일로서 후에 '경기도 묘제 석조미술'의 간행과 연구조사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자료로서 일조했을 것이라는 데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용인지역은 한남정맥에 위치하고 분지가 많아 예로부터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말이 있는 바와 같이 풍수·지리적으로도 음택과 명당이 많은데에 주목을 받아온 지역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한양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족이나 사대부 계층의 분묘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그 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수록된 분묘자료를 읍면별로 보면 기흥읍지역 22기, 수지읍 18기, 구성읍 9기, 모현면 33기, 양지면 14기, 포곡면 20기, 원삼면 29기, 이동면 30기, 남사면 25

기, 용인시 구, 용인읍지역 3기 등 213기의 분묘가 조사되었다. 조사에 투입된 인원은 용인대학과 서울여자대학 사학과 학생 등 15명이다. 면수는 541쪽이며 발행부수는 1000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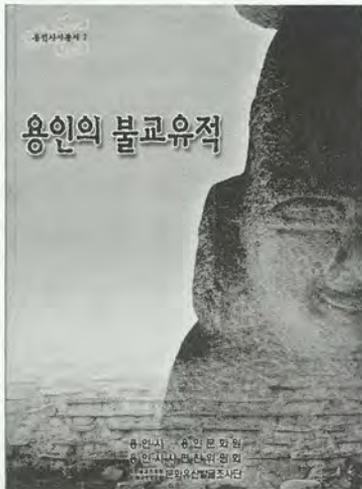
35. 처인성 주변지역 지표조사 보고서

용인시사자료 총서 제11권으로 간행된 책. 2002년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하였다. 1979년부터 용인문화원과 용인시사편찬위원회에는 용인지역에 남아 있는 문화유적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각 분야별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책은 그 중의 하나로 처인성에 대한 시굴조사와 함께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사가 미비했던 옛 처인부곡지역과 처인현의 관할구역으로 여겨져 온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지역에 대한 학술조사는 단순히 처인성만을 강조하였던 기존의 인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처인성을 축조하였던 해당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본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차용걸 충북대학 교수를 비롯하여 명지대학교 박물관, 용인시사편찬의 상임위원 양정석, 백종오 경기도박물관 학예사, 박연서 충북대학 중원문화연구소 학예사 등이 참여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남사면 봉무리지역, 전궁리, 창리, 통삼, 북리, 아곡리, 완장리 지역, 이동면 서리지역 등이 그 조사대상 지역으로서 토기, 자기류 등의 유물산포지 및 요업지 등이 조사되었다. 면수는 260쪽 분량이며 발행부수는 1000부이다.

36. 용인의 불교유적



2001년 용인시사 자료 총서 제7집으로 발행된 책. 그동안 용인의 향토사를 연구해 온 사람들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용인지역의 불교유적 자료가 부분적으로 조사되어 왔으며, 유적의 현상 설명에 치중해 왔으나 본 자료조사는 전문기관에 의하여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였다는 점이 큰 성과로 손꼽힐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문헌의 기록이 부족하고 현존하는 유물들의 거의는 명문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족한 부분을 양식적인 고찰을 통해 편년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조사 자료에서는 관내에 산재하는 불상의 현상과 양식적인 특징을 아울러 조사함으로써 대략적으로 편년을 시도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처음 시도된 용인시의 불적조사는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연구소에서 이미 조사된 서봉사지 등 8개소를 제외하고 현존하는 사찰 3개소, 사지 5개소, 보살입상, 보살상, 부도, 석탑 등 20여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지명 조사를 통해 4개소의 새로운 사지를 조사하고 이에 수록하였다.

조사된 유물에 대한 연대의 하한은 문화유산 발굴조사단이 정한 조사연대 하한인 18세기를 기준으로 하고 18세기 이전의 유물은 실측 등의 제반 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의 불교유적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혜자를 비롯하여 22명의 대학 전문 인력이 투입되었다. 조사 내용을 보면, 불교유형문화재 5개소, 용인관내의 주요사찰 5개소, 사암지 11개소 등 21개소에 달하며 문헌에 나타나는 용인의 불교유적자료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발행처, 용인문화원, 발행부수 1000부.

37. 용인의 마을 의례



2000년,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한 용인시사총서 제5권, 이 보고서는 용인 관내에서 마을 단위로 행하여져 왔던 여러 공동체적 의례들을 조사 연구하여 작성되었다. 이는 용인의 공동체적 원리와 신앙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피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자료에 해당한다. 지금은 많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예전에는 각개 마을에서 음력 10월 상달과 정월, 단오와 칠석 등의 절기에 따라 공동체적인 의례를 행함으로써 마을 거주민들 간의 응집력과 정신적인 일체감을 유지하며 마을의 안녕

과 다산과 풍요를 위한 공동체적인 의례를 행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마을 단위로 모셔져 왔던 산신제, 고목제, 서낭제, 우물제 등이 행하여졌고, 공동체적인 놀이로서는 거북놀이나 줄다리기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특히 공동체적인 의례에는 용인의 민속 문화가 다양하게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 다양한 용인의 민속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 마을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지 않고 일단 용인의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용인의 마을 의례도 도시화와 산업화의 급속한 문화 변동에 따라 쇠퇴하거나 소멸되는 경향이 두드러지지만, 일부는 전통문화를 재창출하여 쇠퇴하거나 소멸된 문화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이들 중에서 대표적인 마을의 제의와 행사 등은 잘만하면 읍면동의 축제나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상들이기도 한데 죽전지구의 줄 보맥이 놀이와 같은 예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조사 수록된 마을은 구 용인읍 지역에서는 운학동, 삼가동, 고림동, 김량장동 등의 11개 지역, 수지구 지역 2개소, 기흥지역의 구갈, 지곡, 농서, 보라지역 등 6개소, 구성 지역 5개소, 모현 지역 4개소, 포곡지역 8개소, 양지지역 9개소, 남사

지역 5개소, 이종지역 8개소, 원삼지역 6개소, 백암지역 3개소 등이 조사되었다. 면수는 284쪽, 발행부수는 1000부이다.

38. 용인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



용인시사총서 제 9집,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중덕마을에 위치한 고려백자 요지(窯址)는 1930년 일본인 도자사학자 아사카와(淺川伯教)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1960년대에 정양모(鄭良謨)에 의하여 고려시대 초기의 요지임이 확인되면서 학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1980년대 호암미술관에 의하여 세 차례에 걸쳐 발굴이 실시되면서 우리나라 자기 발생과 초기의 제작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써 유적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사적

329호로 지정되었다. 요지의 발굴은 부분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 과정에서 유적의 범위와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 가무유구와 퇴적층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책자는 용인의 '고려백자 요업지에 관한 출토유물검토(전승찬 호암미술관 선임연구원)', '발굴 요적(窯蹟)을 통해 본 전축요(塼築窯)의 운영시기 고찰(이종민, 해강도자미술관)', '라말려초 한국자요(韓國磁窯)의 계열과 변천(최건, 해강도자미술관)', '자기 발생문제와 일본에서의 연구의 과거와 현재(기라후미오, 吉良文男)' 등 일본인 학자와 임사민, 김영미, 박순발, 김난옥 등 도자사 전문가들의 논고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총서 말미에는 “한국도자사 연구에서 용인 서리백자 요지의 위상” 이라는 논제를 놓고 발표한 학술대회 종합토론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용인의 서리백자 요업지에 관한 도자사적인 의미를 두고 국내외의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향토사적으로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된다.

면수는 206쪽 분량이며 삽도는 컬러 사진으로 하여 자기의 원형질감을 이해하도록 편집되어 있어 향후 용인의 고려백자요지 연구의 참고자료로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다.

39. 용인의 역사지리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한 용인시사총서 제6권.

이 책은 현대판 여지승람, 혹은 인문지서로서 용인의 자연과 인문환경, 용인의 교통과 산업, 용인의 취락 등에 관하여 현재의 실상과 역사유적 자료를 수록한 책이다. 이 책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주관으로 조사 기술된 것으로 2000년 10월 간행되었다.

용인은 과거 한반도의 남부를 종관하는 영남대로상에 위치한 곳으로 흔히 한양으로 통하는 길목으로 지칭되어 왔으며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배경으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온 고장이다. 이와 같은 국토의 공간상에서 용인이 지닌 중요성은 최근 더욱 증대하고 있는데 197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의 격랑속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용인의 역할이 계속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이란 대도시의 배후도시로서 주거 공간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고 따라서 교통의 수요와 도시개발이라는 변화과정에서 용인의 옛 자취는 날로 소멸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의 추세라면 머지않아 용인의 옛 모습은 역사속에 묻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 책은 개발과 변화로 인하여 생성소멸 되고 있는 향토의 정서를 문헌상으로나마 정리 보존해야 할 필요성에 의하여 부분적이기는 하더라도 용인이라는 삶의 터전을 요약 정리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면 수는 263쪽 분량이다.



40. 용인 처인성



용인시사총서 제10권, 용인 처인성 시굴조사보고서 2002년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한 책.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서 용역을 맡아 조사하였다. 처인성터에 대하여는 1998년 용인시와 용인문화원 그리고 용인시사편찬위원회와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 의하여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처인성에 대한 대략의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용인의 옛성터(용인시사 총서 제4권)에 의하여 통일신라 후기에 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 용인의 관방유적에 대하여 보다 더 정확한 학

술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의 조사를 통하여 처인성의 학술적,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보고된 자료이다.

보고서 내용은 문헌고찰, 실측과 시굴, 지표조사, 시굴성과와 전망, 출토유물의 실측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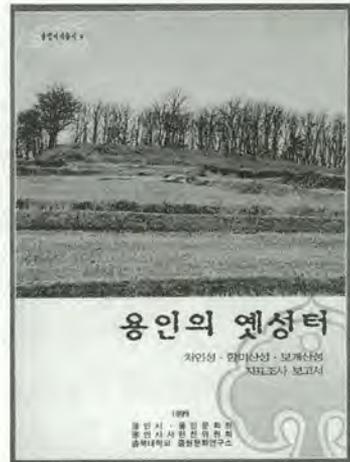
조사과정에서 고려시대의 코뎡이 청제대도가 출토되었고, 일단의 무구류 등 유물들이 확인되어 전투행위와 관련된 관방유적과 관련성이 높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으며 특히 통일신라 양식의 암막새와 기와는 매우 우수한 작품으로 성내에 권위건축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특히 남문지에서 채집된 목탄의 탄소연대를 측정된 결과 1250년에서 60년이 늦은 1370년대까지의 연대를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 시기는 대략 고려 고종 말년과 원종의 시기를 거쳐 공민왕 시기까지 이른바 원과의 관계가 밀접했던 시기에 불에 타을 가능성이 95%의 확률로 나타나는 등의 자료가 확보되기도 하였다. 면수는 244쪽 분량이며 발행부수는 1000부이다.

41. 용인의 옛성터

용인시사총서 제 4권, 처인성, 할미성, 보개산성 지표조사보고서, 이 책은 1999년 용인문화원과 용인시사편찬위원회에서 공동 편찬한 것으로 조사 실무는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소장 박선주)에서 맡았다. 조사대상 지역은 용인의 석성산과 할미성, 처인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98년 11월에 착수하여 1999년 2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전문적인 학술조사였던 만큼 이 방면에 대한 조사 경험이 풍부하고 내외에 객관적인 학술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사·연구기관을 모색하던 중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를 선정하였고, 용인지역의 향토사연구 모임체에서 조사에 협조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1. 조사경위, 2. 조사대상 성터와 조사범위, 3. 성들의 위치와 주변환경, 4. 처인성, 할미성, 보개산성, 보개산 봉수터 등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와 83개의 실측도면, 210개의 사진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석성산과 보개산 명칭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두 성의 위치에 대한 문헌조사가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점이 아쉽다. 면수는 316쪽, 발행부수는 1000부이다.



42. 정몽주(鄭夢周)

2003년 6월 20일 용인문화원에서 발행한 포은문화제 홍보용 책자, 4·6판, 용인문화원 포은문화제



추진위원회(홍재구)에서 발행하였다. 총 면수는 92쪽 분량으로 홍순석과 김성환이 공편한 것으로, 제 1장은 '포은 정몽주의 생애' 2장은 '포은 정몽주의 사상과 학문', 제 3장은 '포은 정몽주의 유적' 제 4장은 '포은 정몽주의 연보' 등으로 나누어 편집되었다. 발행부수는 1000부로 2003년 6월 20일에 실시된 제 1회 포은문화제 전국학술대회 ('포은정몽주선생의 사상과 학문')를 개최하고 이에 참석한 내외 인사들에게 배포하였다.

43.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龍仁·陽智·竹山)



용인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조선 지리지자료(용인·양지·죽산편)의 영인본. 2008년 4월에 간행되었다. 본래 필사본으로 된 '조선 지리지자료' 중에서 용인·양지·죽산 등 용인에 관계되는 부분만 따로 발췌하여 엮은 책으로 이 자료는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900년대 초반의 지명자료이다. 본 책자의 서두에 기록된 해제 내용을 원문대로 이기한다.

“도서관에 있는 간단한 서지정보를 참고해 보면, ‘지리지자료’는 임시토지조사국에서 편찬하였고, 경성(京城)에서 발행한 것으로 간행연대는 1919년(대정 8)으로 되어 있다.

기재순서는 도(道)와 군(郡)을 나누고 그 아래 항목을 나누었는데 종별(種別)/지명(地名)/비고(備考)로 구분하여 기록하였고, 괄선(罰線)을 친 기록양식은 ‘지리지자료’를 편찬하기 위하여 특별히 만든 것으로 보인다.

종별(種別)은 조사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산·곡명(山·谷名), 야·평명(野·坪名), 천·계명(川·溪名), 면명(面名), 동·리명(洞·里名), 역명(驛名), 시장명(市場名), 주막명(酒幕名), 보명(湫名), 령·치·현명(嶺·峙·峴名), 토산명(土産名), 사찰명(寺刹名), 고비명(古碑名), 고적명(古蹟名) 등이다.

이들 종별은 중앙에서 미리 정하여 하달한 것으로 보이며, 용인편에 없는 도·진명(渡·津名)이나 포구명(浦口名) 등을 모두 합하면 21개 종·별이 된다.

본 자료집에 수록된 종별만을 보아도 앞·뒤가 바뀌거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용인이나 양지, 죽산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또 언문(諺文) 칸에는 위 칸에 있는 한자지명을 우리말로 표기 하였으나 비어 있는 칸도 많아서 우리말 땅 이름은 모두 알기 어렵다.

『지지자료』는 2001년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내 고장 용인地名地誌'에 수록되어 있는 구 한국시대의 지명지와 거의 같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내 고장 용인 지명·지지'에 설명된 내용을 보면, 1910년 일제가 강점한 이후 조선의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 조사된 것으로 작성기간을 대략 1910년부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 있기 이전의 2~3년간으로 보았다.

『지지자료』에 있는 내용도 종별의 순서나 내용상 한 두 개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위의 '지명지'와 같은 시기에 조사된 것으로 보인다. 간행년도는 1919년으로 되어 있지만, 양지군과 죽산군이 독립된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고, 면과 리·동의 명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것이 그대로 조사 수록되어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비록 간행년도는 1919년 이라 하더라도 1914년 이전에 조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본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복사본을 영인한 것으로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용인과 양지를 포함하고, 행정구역 개편 이후 용인에 편입된 죽산의 일부를 그대로 전재하여 수록하였다. 영인으로 인해 다소 인쇄상태가 미흡할지 모르나 연구자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향토문화연구소장 정양화>

44. 용인 시우회전집(詩友會全集)

용인문화원 한시동호회(詩友會)의 작품을 모아 간행한 책. 이 책은 소현 김우진 등 회원 8인과 이기창(李起昌) 선생의 찬조시 등 111편의 시제(詩題)에 따라 550여 수의 7언 율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2005년 5월 간행되었다. 면수는 310쪽 분량이며



2007년 12월 제 2집이 속간되었다.

편집 내용을 보면 홍재구 원장의 간행사를 비롯하여 본회 고문 김우진의 서문, 회장 김건중의 서문이 있고, 첫 장에는 “민족정신”을 주제로 조병호, 정영재, 전우석, 이기창, 이병목, 정양화 등 6인의 연작시를 비롯하여 마지막 장에는 시우성편 장종(詩友成篇將終)이라는 주제로 김우진, 김건중, 조병호, 정영재, 전우석, 이병목, 정양화 등 7인의 시가 등재되어 있고 후미에 정양화의 발문이 있다.

45. 전국 한시백일장 추모시집

제1회 포은문화제의 일환으로 실시된 전국한시백일장 추모 시집으로 2003년 12월 간행되었으며 2003년 6월 21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포은묘하에서 실시된 한시백일장 입선작 및 선외 작품을 모아 간행하였다. 면수는 195쪽 분량이며 서문에는 홍재구 원장과 한시협회 이사장 김우진의 서문이 있고 장원작 1편, 차상과 차하로 뽑힌 작 5편, 참방 5편, 가작 22편, 선외 124편, 찬조시 7편과 조병호의 발문이 게재되어 있다.



이후 이와 같이 포은문화제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된 한시백일장 당선작 및 참가작을 모은 시집은 2009년분까지 총 6권이 속간되어 포은 선생의 충절에 대한 시작이 총 망라되었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6. 용인향토사료 항목목록

2006년 12월 용인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향토사료'를 항목별로 총정리한 책, 이 책은 용인 향토사 관련의 성과물 57종의 단행본을 저본으로 기본항목을 추출하여 정리한 자료집이다.

본래 이 사업은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추진 사업인 '디지털용인향



토대전'의 편찬을 위한 선행 과제를 수행하면서 비롯되었다. 선행 과제에서 기본항목이 3천여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기왕에 정리한 1만여 개의 기본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용인지역 향토사 관련 단행본이 295종이며 논문과 자료 해제 등이 81종에 달한다.

편집내용을 보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되어 있고, 대분류는 '삶의 터전(자연과 지리), 삶의 내력(역사)' '삶의 자취(문화유산)' '삶의 주최(성씨와 인물)' '삶의 틀(1. 정치와 사회, 2. 경제와 과학)' '삶의 내용(1. 종교, 1. 문화와 예술)' '삶의 방식(생활가 민속)' '삶의 이야기(구비전승과 어문학)' 등으로 편집되어 있다. 국배판, 상철, 면수는 320쪽 분량이다. 발행부수 1천부.

47. 용인 석성산 봉수(烽燧)

이 보고서는 2009년 용인문화원에서 충주대학교에 의뢰하여 연구 작성된 '용인 석성산 봉수 정비 기본 계획서'이다. 석성산 봉수는 처인구 포곡면 마성리 산78번지 일대에 소재하며 규모는 200여 평이다. 이 산은 일명 보개산으로 불리는데 석성산 동북쪽에 있으며 속칭 봉두라지라고 한다. 『동국여지승람』에 '동쪽으로 건지



산(巾之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광주 천천현(穿川峴)에 응한다.’ 고 하였고 『수원군 읍지』에 ‘용인의 석성산과 화성의 서봉산(棲鳳山)에 연결되어 서울에 응한다’ 고도 하였다. 봉수(烽燧)라고 하는 것은 전시 화광통신(火光通信) 수단인 일종으로서 봉(烽)은 햇불을, 수(燧)는 연기를 말한다.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송·수신(送受信) 하였다. 거화(炬火)는 평시 무사한 때 정각(定刻)에 1거(一炬), 적이 처음 나타났을 때 2거(二炬), 적이 국경에 근접하였을 때 3거, 적이 국

경을 침범하였을 때 4거, 적과 접전하였을 때 5거하여 변방의 사정을 병조에 알렸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에 약 620여 개소의 봉수지가 있었으며 각 개 터에서 동서 5개 노선을 통하여 목맥산(남산)으로 송신하였다. 그 중 제 1노선은 함경, 강원, 양도에서 양주의 아차산을 거쳤고 제2노선은 경상도에서 광주의 천천현을 거치고 제3 노선은 평안도에서 제4 노선은 평안, 황해 양도의 해안선봉으로 제5노선은 충청, 전라, 양주에서 양주의 개화산봉을 거치게 되어있었다. 양지의 건지산과 용인의 석성산 봉수는 제2 노선의 직봉(直烽) 40개 처의 하나로 시점(始點)은 부산 다대포의 노봉에서 시작되어 양산, 언양, 경주, 영천, 신영, 의흥, 의성, 안동, 예안, 영천, 봉화, 순흥, 풍기, 단양, 청풍, 충주, 음성, 죽산(망이산), 양지(건지산), 용인(석성산), 광주(천림산)을 지나 목맥산(남산)으로 연결, 송수신하게 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는 석성산 봉수대의 복원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원형을 복원하고 할미산성 등 기존 문화관광 자원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된 자료이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1. 현황조사, 2. 석성산 봉수 현황 및 유사 사례의 분석, 3. 여건분석, 4. 기본 구상 및 지표설정, 5. 종합 정비계획, 6. 사업계획 순으로 편집되어 있다.

말미의 부록 란에는 ‘내지 봉수 정비·복원사례’ ‘봉수략사’ ‘봉수 용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용인문화원에서는 2008년부터 석성산 봉수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충주대학에 석성산 봉수 정비계획을 의

로 하였으며, 보고서에서는 종합정비 추진체계와 석성산 일원에 대한 보호·관리 등 종합적인 정비 기본 계획이 담겨 있다. 2009년 2월 발행되었고, 면수는 180쪽 분량이며 발행부수는 1000부이다.

48. 역사문화수첩

2009년 11월 용인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책, 이 책은 한·중·일 연호 색인표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내외 관직표, 조선시대의 관제(관제) 및 관직 해설, 역사용어 해설, 계촌법과 호칭 법, 근친 간 칭호 법, 연대조건표, 참고도감 등을 수록한 책이다.

특히 조선시대 동반과 서반의 관직과 관청별 직위와 직급 등을 상세 도표로 정리하였고, 연대조건표는 중국의 연호와 우리나라 삼국시대와의 연대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말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로부터 2043년대까지의 서기와 단기연호를 기재하였다. 면수는 138쪽 분량이다.



49. 용구문화(龍丘文化), 계간지

1984년 12월 31일 초간 된 향토문화 종합지 국판 60여 쪽 분량으로 매 분기별로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발행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모 원장 때에는 편집내용이 시사지 성격으로 변질되어 간행된 책자가 폐기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1998년 지령 28호에 이르기까지 향토문화 종합지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1호로부터 28호에 이르기까지의 표지 그림은 용인 출생, 또는 용인과 연고가 있는 역사적 인물의 초상화를 실었다.

내용으로는 문단, 논단, 논문, 논고를 비롯한 역사기행, 문화재 발굴, 교육, 문헌, 분묘, 지명, 내외 문화 동정, 민속놀이 등 다양한 소재가 수록되어 있다. 발행부수는 1천부 각 시 군을 비롯 관내 각급 기관 단체에 배부되어 용인을 내외에 소개하고 알리는 메시지 역할을 해왔다.



〈용구문화 기간호(既刊號) 총 목차〉

『창간호』 - 1984. 12. 6-

창간사	문화원장 / 3
축간사	용인군수 / 4
축간사	교육장 / 5
〈학교순례〉	
강남사회복지학교	6
태성중고등학교	7
용인여자고등학교	8
용인상업고등학교	9
생활로서의 미술	이강수 / 10
꽃을 꽃는 마음	오민근 / 11
사진〈담음회〉	김윤항 / 13
내고장 민요〈모심기노래〉	장성훈 / 15
수필〈인간의 이해타산〉	양승본 / 16
주부백일장 장원작	고종우 / 18
다 레	노석경 / 19
〈교육소식〉 용인7위인의 열 계승교육	교육청 / 22
〈문화재소개〉 현오국사탑비	이인영 / 23
문화원 임직원명단	27

『제2호』 - 1985. 3. 31-

청소년의 해를 맞아	문화원장 / 4
격려사	용인군수 / 6
칼럼 〈효〉	박재성 / 7

〈학교순례〉	
명지대학교	8
송전농고	9
〈용구문단〉	
수필 '내가 좋아하는 남자'	양승본 / 10
시 '사랑하는 마음'	박상돈 / 13
꽃꽂이〈영지회〉	오민근 / 14
『특집』인장고, '호산인보를 중심으로'	이인영 / 15
『역사속의 내 고향』	
옛 문헌속의 용인	홍순석 / 25
선사시대의 문화	정양화 / 27
3·1운동과 용인	한시준 / 38
향토지리지	박용익 / 42
『내 고향 민요』 베를가	47
역사인물 · 이단상편	48
지명유래 '산쟁이' '도깨비골' '무량동'	이인영 / 51
『제3호』 - 1985. 6. 30-	
경로효친의 생활화	양승본 / 6
청소년 선도의 길	BBS연맹 용인지부장 홍재구 / 9
〈학교순례〉	
한국외국어대학교	11
백암종합고등학교	13
〈꽃꽂이〉 영지회	오민근 / 15
〈용구문단〉	
수필 '내가 좋아하는 여자'	용인상고 안종식 / 16
시 '복지용인, 용덕사'	박상돈 / 19
〈기업순방〉 주식회사 녹십자	21
범죄 없는 마을(구성면 중리4리)	24
터키참전비	25
〈신간〉 佳泉詩集	송요중 / 26
〈내 고향민요〉 자장가	28
〈집성촌〉	태성교교 강창희 / 29
〈지명유래〉 탁영봉, 좌전고개, 민재궁	이인영 / 32
〈특집〉 토성.	향토문화연구위원 정양화 / 34

석비문화의 영육

이인영 / 46

『제4호』 - 1985. 9. 30-

한국청소년의 의식구조 소고

김종두 / 7

〈용구문단〉

〈시〉 만추

박상돈 / 9

너 나 돌이365

이길호 / 10

구월의 창공

김학민 / 11

무제

임준규 / 12

1919년 이후

최희면 / 13

〈수필〉 가을의 전연

안종식 / 14

가을이면 생각하자

박상돈 / 17

저축 글짓기 입선작 동전이준 보람

신갈국교6년 박미현 / 21

〈꽃꽂이〉 고전의 향기

영지꽃꽂이 오민근 / 23

로딩과 생각하는 사람

이원석 / 24

포토 에세이

김운항 / 28

〈학교순례〉 용인여자중학교

32

〈기업순방〉해동산업주식회사

33

한국화전시회

박종용 / 38

가로명 창안의 시말서

이인영 / 39

오달제 매화죽

오정근 / 43

개화기가사 충군가, 효친가

45

옛날 옛적에

박민웅 / 48

옛문헌속의 용인, 龍仁園亭小憩

홍순석 / 52

〈지명유래〉 풍덕에서 오신다는 풍덕래

이인영 / 54

〈역사인물〉 청백리 척약재

최완강 / 56

『제5호』 - 1985. 12. 30-

한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맞으며

박상돈 / 7

〈용구문단〉 시. 연

박상돈 / 12

기도

안재승 / 13

겨울 꽃

이길호 / 14

안압지

정태순 / 15

겨울

임준규 / 16

〈주부백일장 장원작〉 엄마의 가정교육

조매자 / 17

아름다운 이 조국을	포곡초등학교 6학년	백진 / 19
아름다운 꽃동산	신갈초등학교 6학년	이현경 / 21
〈꽃꽃이〉 첫눈 오는 날		오민근 / 24
포도에세이		김윤항 / 25
〈학교순례〉		
경희대학교		29
모현중학교		32
〈탐방기〉 사은정		조운원 / 35
타맥놀이		하주성 / 37
〈옛 문헌속의 용인3〉 용인을 지나가는 도중에		홍순석 / 41
지명유래 방축골		이인영 / 44
의인 윤 섬		이인영 / 46
〈특집〉 할미산성		정양화 / 47
『제6호』 - 1986. 3. 31-		
어린시절		박상돈 / 6
〈용구문단〉 시. 당신들이 무어라 일컫든		유영 / 9
빛갈		안재승 / 11
제3의 고독		박상돈 / 12
겨울이 봄에게		이길호 / 13
어느 하루의 의미		임준규 / 14
서예소고		김동해 / 17
〈꽃꽃이〉 조선여인		오민근 / 19
〈학교순례〉 용동중학교		20
〈연수원탐방〉 흥국생명연수원		24
참우정		박민웅 / 26
〈특집〉 3·1운동실상		이용락 / 29
만주에서 독립운동전개한 김혁		34
교육사업과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여준		36
〈민속놀이〉 지경달기		하주성 / 38
〈내 고장 민요〉 모심기노래, 논매기 노래, 애벌매기 노래, 김매기 노래		
꿀 노래		42
〈옛 문헌속의 용인 4〉 양벽정기		홍순석 / 46
〈용인금석문자료 1〉 유복립정려기		홍순석 / 49
〈지명유래〉 비성고개		이인영 / 51

〈역사인물〉 조선명신 이 자

이인영 / 52

『제 7호』 - 1986. 6. 30-

용인 소년소녀에게

박상돈 / 6

〈용구문단〉 시. 겨울바다

박준규 / 13

아카시아

이길호 / 14

모교 여름스케치

정수자 / 15

원점인생

김학민 / 16

무명용사에게

최희면 / 17

오월 어느 날

박상돈 / 18

김량천

장명국 / 19

제1회 용구문화제를 성황리에 개최

20

제1회 용구문화제 이모저모

23

내가 본 용구문화제

노영득 / 29

〈꽃꽂이〉 유월의 신부

오민근 / 31

소녀의 꿈

정은영 / 32

〈학교순례〉 문정중학교

33

대한유도대학

35

〈특집〉 언론계의 선각자 석농 유근

박용익 / 38

〈민속놀이〉 지신밟기

하주성 / 43

〈옛문헌속의 용인 5〉 南歸紀行

홍순석 / 51

〈지명유래〉 학일 외 2

정양화 / 55

『제 8호』 - 1986. 9. 30-

청소년 지도문제를 생각해 본다

정필영 / 7

〈용구문단〉 수필. 내고향 9월은

이향이 / 10

시. 신은 별을 키워야 했다

노영미 / 12

가을 소묘

박상돈 / 13

새

박준규 / 14

꽃의 인사

이길호 / 15

눈뜨는 삶

김학민 / 16

〈용인군 저축 글짓기 공모작〉

초등부 최우수작, 땡그랑 땡그랑

기흥국교 4 이정희 / 17

중등부 최우수작, 희망의 통장

백암고교 1 백승각 / 19

〈새마을 문고 주최 제1회 우수독후감 모집 작〉

최우수 당선작 · 양지국교 새마을 어머니회	손영숙 / 22
〈꽃꽃이〉	오민근 / 25
〈학교순례〉 원삼중학교	26
〈특집〉 언론계의 선각자 유근(하)	박용익 / 27
부아산과 비류, 그리고 삼각점	이진호 / 33
한국의 이상적인 선비 십칭헌 김세필	최희면 / 37
용인은 초기 백제의 고읍이다	이인영 / 41
〈옛 문헌속의 용인 6〉	홍순석 / 56
〈용인금석유문자료 3〉 남곡기	홍순석 / 58
『제9호』 - 1986. 12. 31-	
미술사생 실기교육의 중요성	이상학 / 7
〈용구문단〉 수필. 한 해를 돌아보며	박상돈 / 9
시. 오늘은	이갈호 / 13
나	노영미 / 14
겨울뿌리	임준규 / 15
만남	박상돈 / 16
용인문화원주최 제1회 경로효친 사상선양 글짓기 대회	
공모작 최우수작 경로우대증	제일국교 5 정승교 / 18
제 11회 주부백일장 최우수작 가을	기흥읍상락리 최순순 / 20
제1회 청소년 백일장 최우수작 하얀토끼	서릉국교 4 신동선 / 22
〈꽃꽃이〉	오민근 / 28
〈학교순례〉 남사중학교	24
〈연수원탐방〉 대한지적기술연수원	29
〈지명유래〉	정양화 / 31
〈민속놀이〉 재돋음	하주성 / 33
〈특집〉 언론계의 선각자 석농 유근	박용익 / 39
〈옛 문헌속의 용인 7〉	홍순석 / 44
〈용인금석 유문자료 4〉	홍순석 / 45
『제10호』 - 1987. 3. 31-	
향토문화총서 발간사업,	문화원 사무국장 이용준 / 7
〈용구문단〉 수필. 후회	박상돈 / 9
시. 약속을 위하여	노영미 / 14
새벽마다	임준규 / 16
봄의 문턱에	이길호 / 17

목련	박상돈 / 18
소한 외 1편	유혜경 / 19
분재와 우리생활	신영희 / 21
〈꽃꽂이〉 춘삼원	오민근 / 22
〈마을지 1〉 서리	이인영 / 23
〈특집〉 용인의 민요, 속요를 중심으로	하주성 / 29
〈옛 문헌속의 용인 8〉 용인을 지나며	홍순석 / 47
〈용인금석유문 자료 5〉 심곡서원 강당기	홍순석 / 48
『제11호』 - 1987, 6, 30-	
조선백자의 이해	호암미술관 학술연구실장 김재열 / 7
〈용구문단〉 수필. 편지	박상돈 / 10
시. 6월에	노영미 / 18
그대의 이름은	이길호 / 19
무제 외 1편	유혜경 / 22
신록	임준규 / 24
서예감상. 춘경	용문서예학원장 김춘자 / 25
삼미인곡	용인서예학원장 이경훈 / 26
일사일고(一事一考)	애향즉애국 박필동 / 27
〈꽃꽂이〉 꿈속위 환상	안창진 / 29
〈마을지〉 보정리	이인영 / 30
〈특집〉 지방문화의 활성화는 가능한가?	하주성 / 34
〈옛 문헌속의 용인 9〉 정암선생 사당에서	홍순석 / 39
〈용인금석유문자료 6〉 증 참판 이공 정려기	홍순석 / 38
용인문화재 및 향토유적 현황	편집실 / 45
『제12호』 - 1987, 10, 31-	
공자사상의 재조	명지대학교교수 김위현 / 6
용인군지를 집필하고 얻은 것들	지적기술연구원 이진호 / 10
〈용구문단〉 수필. 가을, 그리고 한권의 책	박상돈 / 14
시. 그리움	임준규 / 18
비오는 날	박상돈 / 18
가을 저녁	이길호 / 21
내가 본 땅굴	수정초등학교장 유치현 / 22
〈일사일고〉 同舍夫人	석 강 / 28
〈꽃꽂이〉 가을	이정미 / 31

〈특집〉 우리나라 미술의 특징 (1)	김재열 / 32
〈옛 문헌속의 용인 10〉극기의 이야기를 듣고서	홍순석 / 36
〈용인금석유문자료 7〉 양지현 중수동헌기	홍순석 / 37
제 17회 용인군의 날, 제2회 용구문화제 소식	43

『제13호』 - 1987. 12. 31-

용인만평	명지대학교 인문대학교수 신천식 / 7
〈용구문단〉 수필. 함박골의 봄	김미숙 / 14
시. 아내	박상돈 / 16
무풍지대	이길호 / 17
〈일사일고〉 금과 김	석 강 / 18
〈꽃꽂이〉 봄	오민근 / 21
〈서예〉 顔眞卿의 爭座位帖	김주익 / 22
구 혼례의 절차	편집실 / 23
〈특집〉 우리나라 미술의 특징(2)	김재열 / 32
〈옛 문헌속의 용인 11〉	
용구 별장으로 떠나는 이석지에게	홍순석 / 32
〈용인금석유문자료 8·9〉 사은정기	홍순석 / 33
중수 사은정기	홍순석 / 36
〈용인문화원 주최 제2회 청소년 백일장 최우수 작〉	
사랑의 코스모스	백암초등학교 6 문아영 / 40
작은 애국에서	신갈중학교 2 정희자 / 42
힘든 생활의 보람	송전농업고등학교 2 원예과 한현미 / 44
〈용인군 주최 학생 저축 글짓기 최우수 작〉	
우리 집의 저금통	용인초등학교 6. 홍설하 / 48
근검절약	용인여자고등학교 2. 김세미 / 50

『제14호』 - 1988. 3. 31-

용인의 도로발달사	지적연수원 교수 리진호 / 7
〈용구문단〉 수필. 의무	금병덕 / 11
겨울종점	정 민 / 13
시. 산을 오르면	이길호 / 16
기다림	박상돈 / 17
〈일사일고〉 맹세	석 강 / 18
〈꽃꽂이〉 봄	오민근 / 20

청소년을 위한 시조풀이	편집실 / 21
〈특집〉 용인서리 고려백자요 발굴개요	김재열 / 23
〈세시풍속〉 산정동 줄다리기	이상학 / 33
김치박물관	편집실 / 39
궁도	편집실 / 40
〈옛 문헌속의 용인 12〉 양지현 시냇가에 쉬며	홍순석 / 42
〈용인금석문자료 10〉 순흥안씨정려기	홍순석 / 43
애주가를 위한 의학상식	45
『제15호』 - 1088. 6. 30-	
〈우리 고장의 명소〉 한국민속촌	홍성학 / 7
〈용구문단〉 시. 바다	박상돈 / 24
아버님의 4 · 19	김지태 / 26
〈용인군 주최 학생저축 글짓기대회 입상작〉	
최우수 : 나의 손은 빈손이 아닙니다	백암종고 김옥수 / 27
우수작 : 나라 발전의 힘	신갈중학교2 박미현 / 29
우수작 : 목요일	용천국교 6 박경란 / 32
〈일사일고〉 오월의 망언	석 강 / 34
〈꽃꽂이〉 연꽃	오민근 / 37
금연꽃꽂이 전시 작품 중에서	/ 38
〈특집〉 용인이씨 원류 1	/ 42
〈옛 문헌속의 용인 12〉 심곡서원에 걸린 현판의 운을 따라	홍순석 / 51
〈용인금석유문자료 11〉 남곡재 중건기	홍순석 / 52
용인군문예회관 건립에 거는기대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이용준 / 55
제3회 용구문화제 계획	/ 57
『제16호』 - 1988. 10. 31-	
사람의 근본 행위는 효이다	명지대학교 교수 김위현 / 7
〈용구문단〉 시. 가을 편지	박상돈 / 11
〈일사일고〉 화마	석 강 / 13
〈꽃꽂이〉 사랑	오민근 / 16
〈醫窓漫筆〉 其1 · 黃帝內徑	운곡 김동명 / 17
〈건강교실〉 고기 많이 먹는다고 오래살까?	/ 20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지혜	/ 22
〈특집〉 용인이씨의 원류 2	/ 23
〈학교순례〉 루터신학교	/ 27

〈씨클소개〉 용구향토연구회	/ 29
주영 서리공사이한응의 중립북방안과 그의 자결에 대한 박상식의 인식	명지대학교 교수 신천식 / 31
〈독점발굴〉 만주·연해주 등지에서 독립운동 한 우송 김만제(玄濟)지사	김성근 / 37
〈잊혀져가는 인물〉 심관섭·안병춘	/ 44
〈옛 문헌속의 용인 14〉 제영	홍순석 / 45
〈용인금석유문자료〉 정한용 효자비각	홍순석 / 46
〈우리의 유산〉 활과 화살	/ 50
성화봉송 맛이 문화축제, 제3회 용구문화제	/ 53

「제17호」 - 1989. 1. 31-

〈논단〉한국농악 가락구성과 용인지역 가락의 특징	김원룡 / 7
〈용구문단〉 시, 바람연가	박상돈 / 19
수필, 가을수상	박상돈 / 20
〈일사일고〉 동서남북	석 강 / 22
서예를 하고 싶은 초보자들을 위한 소고	원창식 / 25
한시감상	원창식 / 28
〈醫密漫筆〉 其2 · 神農本草經	운곡 김동명 / 29
〈특집〉 용인이씨 원류 (3)	/ 31
농가월령가(1)	/ 33
〈옛 문헌속의 용인 15〉 정포은을 기리며	홍순석 / 38
〈용인금석유문 자료 13〉 충렬서원강당기	홍순석 / 39
오늘의 일본	/ 43
용인문화원 89년도 문화행사계획	/ 52
용인문화원 88년도 사업실적	/ 54

「제18호」 - 1989. 4. 28-

문화와 음식	최희면 / 7
〈용구문단〉 시, 살아있는 날들에의 찬가	박상돈 / 10
〈꽃꽂이〉 5월의 신	영지회 용인시지부 / 12
〈일사일고〉 옛날이야기	석 강 / 13
명심보감 강좌(1)	원창식 / 16
〈의창만평〉 其3 傷寒論과 金?要略	김동명 / 19
〈특집〉 용인이씨의 원류(4)	/ 25

농가월령가(2)	/ 33
〈옛문헌속의 용인 16〉 심곡서원에 배알하며	홍순석 / 37
〈용인금석유문 자료〉 읍취헌 박은 묘표	홍순석 / 38
용인 3·1운동 및 독립항쟁기념탑건립 추진위원회결성	/ 46

『제19호』 - 1989. 7. 31-

민속연구에 부쳐	김원룡 / 8
〈용구문단〉 수필. 오년 후의 용인	박상돈 / 12
시. 풀 화살	박상돈 / 15
삶	황범주 / 17
바람	임준규 / 18
〈일사일고〉 활자와 인쇄	석 강 / 19
명심보감강좌(2)	원창식 / 22
〈의창만필〉 其 4 病名別治法	김동명 / 25
〈특집〉 용인이씨의 원류(5)	/ 29
독립지사 오광선장군 소고	이종구 / 31
〈용인금석유문 자료 비 2〉 이완 묘갈	홍순석 / 39
제70회전국체전 경축문화행사 및 제4회 용구문화제행사계획	/ 41
서예감상	이규빈

『제20호』 - 1989. 10. 31-

용인민속연구(1) 수수께끼	금병윤 / 8
〈용구문단〉 시. 여심	재영 / 17
환경정리	정구철 / 19
〈특집〉 남북언어의 이질화	정삼우 / 26
〈일사일고〉 회고	석 강 / 20
용인문화재 발굴소식 · · 유운리, 마성리 지식	/ 44
〈마을지〉 마북리	이인영 / 46
용인군수 취임사	/ 54
용인의병 및 독립운동기념탑 성금기탁자 명단	/ 57

『제21호』 - 1990. 1. 30-

〈특집〉 용인의 시가비 순례	/ 7
〈용구문단〉 시. 친구에게	박상돈 / 15
피아노교실 1, 2	장영옥 / 17

산문. 아름답고 귀한 것	박상돈 / 19
〈제12회 주부백일장 우수작〉 떠나신 후에	정혜경 / 29
〈일사일고〉 생일축하	석 강 / 31
〈의창만평〉 醫學 三字經	김동명 / 35
〈특별기고〉 영동지방의 새로운 의병활동발굴	이진호 / 38
향토우적 순례 · 사은정유래사기	/ 47
용인지방의 민속자료발굴 · 백발한탄가	이인영 / 51
용인의병항쟁 및 독립운동기념탑 건립 성금기탁자 명단	/ 53
용인문화원 1990년도 문화행사계획	/ 58
『제22호』 - 1991. 1. 30-	
〈용구문화 칼럼〉 사회변화와 적을 자세	박헌철 / 10
〈특집〉 1 향토인물 발굴	
70년 만에 찾은 항일애국지사 정철화선생	최희면 / 13
애국열사 남정각 선생	최희면 / 14
〈특집〉 2 향토문화연구. 용인의 지명 연구(前)	김병운 / 17
〈용구문단〉 시. 나의 길	박상돈 / 41
겨울노래	장영옥 / 42
그해 여름	장영옥 / 43
절망하는 하루	김종경 / 44
바보가 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김종경 / 45
봄에 쓴 편지	이종대 / 47
마지막 슬픔을 위하여 외1	장영옥 / 48
친구에게(2)	박상돈 / 49
풀피리	서명금 / 50
수필. 가르치며 생각하며	장삼우 / 51
제 21회 전국통일문예작품 현상공모 금상(통일원장관상)	
화해의 악수	김선미 / 54
용인군 교육청추천 경로효친 글짓기대회 최우수상	
합박눈에서 보슬비로	김상경 / 57
제 13회 주부글짓기 대회 입선작	
고향	이미숙 / 59
고향	조정남 / 61
내 고향	윤용숙 / 62
내 고향	박성덕 / 63

고향	김진순 / 65
〈특집〉 용구문화 창간호(1~21호) 총목차	/ 67
용인지방의 민속자료발굴-목살경	김병윤 / 81
용인의 인물 · 의정원 의원 오의선지사	이인영 / 83
약천남구만과 비파담	이인영 / 86
〈일사일고〉 부패와 뷔폐	석 강 / 90
〈의창만필〉 사상의학(四象醫學)	김동명 / 93
서정 3세대 탄생을 보고	김병윤 / 98
용인문화원 1991년도 문화행사계획	/ 100
〈사발통문〉	/ 102
용인의병항쟁 및 독립운동기념탑비 성금기탁자 명단	/ 111

『제23호』 -1991. 12. 30-

용구칼럼 · 오늘의 노인상	백우현 / 12
〈용구논단〉 고려시대의 도자기	김재열 / 14
우리나라의 보훈제도	오현준 / 27
용인의 교통문제	유재근 / 43
〈살며 생각하며〉	
부모가 보는 교육문제(용인교육을 중심으로)	홍종우 / 47
교육위원회에 들어보는 한마디	송재권 / 50
쌀수입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에 즈음하여	이용구 / 52
〈향토유적발굴〉 澹窩公 洪啓禧	박용익 / 56
〈용인의 민속〉 한터동혜놀이	편집실 / 59
〈용구문단〉 수필. 이별	조항석 / 66
행복	염영애 / 69
여자의 위치	신수희 / 70
시. 울릉도	박상돈 / 87
삶	박상돈 / 88
새는	김종경 / 89
산새	홍사국 / 90
슬픔은 달맞이 꽃에 고인다	김종경 / 91
가을 진혼곡	김종경 / 91
밤바다	임준규 / 93
달	정필영 / 94
강촌	서정일 / 95

내 놀던 옛고향	박성덕 / 96
그리움	박성덕 / 97
성	윤공보 / 98
친정(제14회 주부백일장 최우수상)	박수자 / 99
아픔의 잉태	장성규 / 100
짚단 속에 숨은 말더듬이	정희영 / 101
가을에	임미자 / 102
아 어느 새	유선희 / 103
동시. 인간	이기천 / 104
〈제4회 주부백일장 입상작〉	
친정	최순영 / 72
내 마음의 작은 트랙	정혜경 / 73
친정어머니 회갑잔치	정동숙 / 75
부끄럽지 않은 엄마의 모습	홍종우 / 80
〈통일문예작품 현상공모 입선작〉	
산까지의 여행	김영란 / 83
큰아버지	이승조 / 85
〈내 고장 옛이야기〉 들무데기 전설 1·2	홍순석 / 105
효자와 명의	홍순석 / 106
〈용구산책〉 소인극 경연대회를 마치고	남기형 / 108
용인 탁구동호회	/ 108
용인산악 동호회 운학산을 가다	이재학 / 110
인성합창단 창단동기 및 약사	차금환 / 113
〈용구인물〉 문화원 사랑방에서 현역대령이 론어강의	편집실 / 116
농촌을 지키는 요즘사람 권오성	편집실 / 119
〈용인관내 소식〉	
경기도 용인군 도의원 소개	/ 120
용인군 의회현황	/ 121
용인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용인축산업협동조합	/ 128
용인군 남사·이동면 1991년 7월 집중호우수해복구현황	/ 132
용인군 군립도서관 신축개황	/ 134
기흥읍민 체육대회	/ 135
용인문화상 시상	/ 138
〈문화원소식〉	
용인지지총람 출판기념식	/ 141

청소년 대상 문화강좌	/ 141
제14회 주부백일장	/ 142
경로효친 효도관광	/ 144
제8회 피아노경연대회	/ 144
10월 문화의 달 행사	/ 145
제8회 영어말하기대회	/ 147
미술사생대회 · 경로효친글짓기대회 · 주부백일장 · 입상지시상	/ 148
모현중학교 취타대에 의상비 지원	/ 158
용인무노하원 기구표	/ 152

『제24호』 - 1992. 12. 30-

용인군의 꽃	이원석 / 23
〈특집〉21세기를 향한 지역문화원 존립의 향토사적 의미	이상학 / 18
국역 용인군읍지	홍순석 / 30
내가 본 UR축산	유한무 / 38
〈내 고향소식〉	
김량장 유래비 건립에 대하여	김지태 / 36
자랑스런 내고향	권순인 / 52
우리고장의 새로운 발전	서은주 / 94
용인의 교통정책과 전망	남덕희 / 102
문화발전은 우리의 의무	정윤준 / 103
92년 용인군향토유적 지정문화재	/ 119
외길인생 40년 이승재 응	/ 60
〈교육현장〉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치자	/ 24
왜 용인의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유학하는가?	황종락 / 104
교육위원 송재권씨를 찾아서	/ 44
〈본원소식〉	
문화원 행사 이모저모	/ 112
용인문화원을 이끌어가는 문화원 가족	/ 116
〈20세기 역사기행〉 700년만의 만남 · 몽골의 이모저모	장성규 / 55
〈나도 한마디〉	
인사 잘하는 사람이 되되자	박필동 / 59
자기분수를 알자	이정웅 / 27
용인군 사회체육이 발전하려면	이화승 / 91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논고	문영숙 / 91
〈용구문예란〉	
시	/ 64
산문	/ 72
수필	/ 82
사진	/ 84
미술	/ 88
서예	/ 89
〈자유기고〉	
여성의 사회참여	신수희 / 28
동동주	권오수 / 42
방랑시인 김삿갓	강명운 / 48
국산품 이용만이 우리의 살길	김은미 / 54
지역품물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강 희 / 62
여성의 지위	임미선 / 95
명가의 가훈	조항래 / 97
한국인의 의자문	정기선 / 98
막힌 곳은 뚫고 꺾인 곳은 바로잡아야	이광열 / 105
내일을 여는 사람들	신창호 / 106
장애인으로 홀로서기	박창서 / 108
바람빠진 풍선	이은남 / 109
우르과이 라운드에 대처하는 방안	류강희 / 92
『제26호』 - 1996. 6. 31-	
사진으로 본 문화원 소식	/ 7
청춘예찬에서	/ 12
〈용구마당〉 원주대동굿	유성관 / 15
용인명륜학교 일기	이종구 / 19
장명등	이인영 / 28
논어에서 배우는 지혜	최희면 / 33
서천리 두레싸움	편집실 / 37
용인문화예술의 현장에서	이상학 / 42
기행문	송재권 / 47
〈학교탐방〉 남사중학교 (송장섭)	/ 58
〈용구문단〉 시. 7월이 오면	박상돈 / 67

공	박상돈 / 68
농부는 화가여	홍사국 / 69
수필, 5일장	심연희 / 70
새벽길을 가르며	이미숙 / 70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김정문 / 76

『제27호』 - 1997. 12. 31-

사진으로 보는 용인의 행사 이모저모	/ 7
논어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최희면 / 43
〈용구논단〉	
조선시대 읍호강등 및 혁읍제도에 관하여	이인영 / 50
처인성 문화유적의 보존과 활용	이상학 / 71
한국사회 문제와 교육의 방향	장삼우 / 80
〈향토문화〉	
영험사부도	이용준 / 13
용인 명륜학교 일기 주해	이종구 / 15
논운의 근경가와 낙치가	/ 23
〈해외시찰기〉	
일본 생애학습센터와 공민관시찰을 마치고	송재권 / 114
〈용인문화소식〉	
한국미술협회 용인지부 창립	/ 166
한국문인협회 용인지부창립	/ 167
한국국악협회 용인지부창립	/ 168
삶의 지혜	/ 113
〈용구문단〉	
초대시 · 다시 태어나리	이상정 / 128
공백을 바라보며 외4편	박상돈 / 130
사계	금병윤 / 135
학생시 · 기억의 뒀안길에서	구정선 / 139
이슬	박영룡 / 140
가을	조미연 / 141
수필 · 아직 어린 아들을 위하여	박홍선 / 142
나의 사생활과 나의 꿈	김홍철 / 147
시멘트가루의 하얀 손	김민경 / 151

우리 가족의 휴가	장선미 / 155
독후감 · 생활하며 얻은 잔잔한 감동	김선희 / 160
도산 안창호를 읽고	황건하 / 163
〈지상갤러리〉 원색화보, 이상학, 변해익, 심옥섭, 오성만, 우종택	/ 109
용인문화원 임원 명단	/ 169

『제28호』 - 1999. 1. 30-

용인문화원 행사 이모저모	/ 11
〈향토문화 탐색〉	
용인의 초상화	이인영 / 21
개화기시대 창가	김태근 / 32
송포 정우용의 생애	이용준 / 40
용인 미술의 동향	오성만 / 45
〈금석문자료〉	
유복립 묘갈	/ 49
이문주 묘갈	/ 53
증정경부인 여씨묘비	/ 68
이수민 묘갈	/ 80
〈주부문화대학 특강〉	
시와 시인	이상정 / 89
지방 자치와 여성의 역할	조창연 / 95
〈학교탐방〉 문정중학교	/ 106
〈용구문단〉	
시 · 달팽이 2	이윤주 / 110
질주	이상정 / 111
이른아침 길가에 코스모스피네	윤순찬 / 114
길에서	양윤덕 / 114
간이역	권중환 / 115
꽃은 쓰러져도 웃는다	김혜숙 / 116
여름서리	김재영 / 117
청려장	박성덕 / 118
수필 · 새 이야기	박상덕 / 119
용인향토학교	/ 122

50. 용인문화(龍仁文化), 계간지

지령 28호까지 속간되었던 ‘용구문화’가 문화원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1999년 1월 간행을 끝으로 일시 간행이 중단되어 왔다. 그 후 문화원 원사가 용인시청 문화예술원으로 이전되고 다시 문화원이 안정적인 틀로 자리가 잡히자 그동안 중단되었던 향토문화의 움직임과 향토사료의 기록물로서의 구실을 하던 문화원 소식지가 재 발행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종래 용인문화의 이니셜로 사용되던 “용구(龍丘)”의 명칭이 배제되면서 좀 더 용인과 직접적인 관련 제호로 바뀌게 된다.

또한 판형도 종전의 문고판에서 국배판으로 변형되었고, 지질 또한 종전의 모조지에서 백상지로 바뀌었다. 2009년 말 현재 VOL.10까지 속간되고 있는데 삽도 역시 올 컬러 화보로 장식되어 시각적으로도 발전된 편집체제를 보이고 있다. 면수는 대략 70~80쪽 분량이다.

〈용인문화 기간호 총목차〉

『용인문화』 창간호 2005, 겨울

발간사	홍재구 / 3
권두시 · 용인의 푸른 숨소리	이 경 / 4
〈특집〉 · 용인문화원의 새 터전	/ 6
제3회 포은문화제	/ 12
〈기획〉 · 칼럼, 문화관의 불통과 소통	정수자 / 18
지명유래 · 김량의 유래	정양화 / 22
용인의 최고를 찾아 떠나는 여행 · 백봉교회	우상표 / 28
에세이 · 혼자떠나는 길	박수자 / 31
정겨운 이웃 · 생명을 키우는 사람	정영자 / 34
지역문화인 소개 · 극단개벽 한원식대표 인터뷰	김장환 / 36
용인의 명가 · 나주정씨	정창진 / 43
〈문화〉 · 문화한마당 · 제3회포은문화제 한시백일장, 어린이 백일장	/ 47
〈향토사료〉	
지역문화재 · 용덕사	/ 52
역사속의 용인 · 수여선	김태근 / 56

용인의 구비전승 · 재치있는 신랑	/ 61
문화체험 탐방기 · 양지향교	홍순석 / 62
<문화학교>	/ 66
문화원 주요행사	/ 70

『용인문화』VOL2, 2006 여름호

<신임의 변> · 지역문화 문화원의 발전을 위한 구상	박환신 / 4
<특집> · 백남준 용인에 오다	김장환 / 6
포은문화제의 상징 · 천장행렬	정양화 / 14
<기획> · 에세이 · 해탈차	조선희 / 22
용인의 최고를 찾아 떠나는 여행 · 태성고등학교	김태근 / 25
지역문화인 소개 · 인간문화재 이형렬선생	김장환 / 30
용인의 명가 · 용인이씨	이규상 / 38
<향토사료>	
지역문화재 · 백련암	이종구 / 44
용인의 맛 기행 · 백암순대	전자영 / 48
문화체험탐방기 · 저현 이석형선생의 유적을 찾아서	홍순석 / 50
문화원 주요행사	/ 54

『용인문화』VOL 3 2006 겨울호

<신임의 변> · 시민감동 문화복지 행정구현	이만우 / 4
<에세이> · 나의 두 번째 남자	정인자 / 6
<특집> · 일본 가라쓰시 쿤치 하키야마 축제	홍순석 / 8
용구문화예술제	정양화 / 14
<기획> · 지역인물 · 농촌발전의 선각자 강태국	이종구 / 21
용인최고를 찾아 · 백암양조장	김태근 / 24
지역문화인 · 차용성, 차진복부자	김장환 / 28
용인의 산수이야기 준비산	이제학 / 35
<문화마당>	
용임문화진단 · 용인의 지역축제를 바라보는 시민의 바램	한미선 / 38
<향토사료>	
문화단체 탐방기 · 용인문화회	한미선 / 38
용인의 맛기행 · 원대구뿔집	전자영 / 46
문화체험탐방기 · 사은정과 이자선생 고택을 찾아서	홍순석 / 48
<문화가족> 서양화교실 · 내 속의 또 다른 나를 찾아	이경성 / 52
<소식> 문화원 주요행사	주인자 / 54

『용인문화』VOL 4 2007 여름호

신임의 변 · 신임문화원장 인터뷰	이종구 / 4
〈특집〉 · 1	
내 마음속의 용인/아버지의 발	권은혜 / 6
혈죽과 아버지	송혜경 / 10
용인이 살 맛 나는 것은	박영순 / 14
내가 사는 용인	최영중 / 17
〈특집〉 · 2	
제5회 포은문화제 추모제례	정양화 / 20
〈기획〉 · 에세이, 나의 그 가벼움	정영자 / 24
용인최고를 찾아서/100년전 용인에 세워진 근대학교	김태근 / 25
지역문화인/무형문화재 박상옥선생 인터뷰	김장환 / 28
강화도 유적답사를 다녀와서	진 속 / 34
전통문화찾기/우리나라의 전통정원과 자연친화사상	김장환 / 28
옛 추억 속의 용인 · 쪽비산(鳥飛山)	정양화 / 51
〈특별기획〉 · 거석문화탐방	
숨 쉬는 선사시대 유적 · 고인돌과 선돌	이은주 / 52
〈향토사료〉 · 문화체험 탐방기/남양홍씨 시정공 무관묘역	홍순석 / 60
〈소식〉 · 문화원 주요행사	주인자 / 64

『용인문화』VOL 5 2007 겨울호

〈용인과 시〉 · 귀가	한창의 / 2
권두언	이종민 / 3
신임의 변 · 김장환 신임 문화원사무국장 인터뷰	이종구 / 4
〈기획〉 · 에세이/석성산에 오르다	박연숙 / 6
용인최고를 찾아서/용인라이프	김태근 / 8
지역문화인 · 용인문화원 합창단 인터뷰	김장환 / 13
안동 · 영주답사기	진 속 / 20
〈특별기획〉	
이동면 서리 백자요지에 대하여	이을영 / 28
용인의 여성인물 조명 ·	김장환 / 32
〈향토사료〉	
지역문화/조선최고의 개혁정치가 조광조	김제정 / 40
추억속의 용인/ 어비리의 옛 모습 ·	정양화 / 48
문화체험탐방기/수지구 고기동 이종무장군 묘	홍순석 / 50
〈소식〉 · 문화원 주요행사	주인자 / 56

『용인문화』VOL 6. 2008 여름호

용인과 시 · 철원탐승유감	정양화 / 2
권두언	이종민 / 3
〈기획〉	
수필 · 내 삶의 터전, 용인을 만나다	조명숙 / 4
행복을 전염합니다	심규순 / 7
지역문화인 · 김동호 인터뷰	김장환 / 10
유적답사기 · 전국문화유적 답사	진 속 / 14
옛 추억속의 용인 · 추계리 영화지	정양화 / 20
부처님과 나무이야기	김장환 / 22
〈특집〉	
포은문화제〈1〉 · 포은문화제의 새로운 변신	정양화 / 26
포은문화제〈2〉 · 현대민속축제로서의 포은문화제	장두식 / 28
터키방문	이종민 / 36
〈특집〉	
용인의 천주교 성지	정기숙 / 38
생겨진천 사거용인에 대하여	이종구 / 43
100년능 맞는 용인의 신작로	김태근 / 56

『용인문화』VOL 7. 2008 겨울호

용인과 시 · 노인의 무게	정금순 / 2
권두언 ·	이종민 / 3
〈기획〉	
수필 · 다음에 오세요	정영자 / 4
이장님 이장님 우리이장님	이미숙 / 6
처인성과 두 남자	박숙현 / 7
지역문화인/용인출신 국악인 최근순명창 인터뷰	김장환 / 12
옛 추억속의 용인/우체국의 예모습	정양화 / 18
〈특별기고〉 · 양지리 제사터 출토유물에 대하여	이인영 / 20
〈특집〉 1	
동양의 몬드리안	변인자 / 24
9월 전국문화유적 답사기 · 합천해인사 팔만대장경	진 속 / 29
문화유적 답사 화보	/ 36
〈특집〉 2	
송병준 부자 송덕비와 선정비	정양화 / 38
전통정원 영화지(영화지) 고찰	김장환 / 42
용인의 악연 송병준	임해봉 / 48
친일매국대신 송병준	임해봉 / 52

『용인문화』VOL 8 2009 봄 호

권두시 · 김량천의 안개	김종경 / 2
에세이 산책 · 철마다 고운 꽃 가득한 곳 돌탑 쌓기	손영란 / 4
시인의 창 · 살아가는 동안 계속 꿈을 꾸는 것	안영선 / 6
〈지역축제 탐방〉 · 봄의 전령사 '산수유 축제'	주영현 / 8
한국민속촌 도서관 앞보기	진 숙 / 10
〈생태보고서〉 · 꽃 앞에 무릎을 꿇다	황귀숙 / 14
〈지역문화인〉 도예가 마순관 인터뷰	김진봉 / 22
〈맛집 탐방〉 · 토속요리 전문점 전단토 마을	김장환 / 26
〈인터뷰〉 · 백토연구가 원유용	김미숙 / 32
〈기행문〉 1인도 불교유적지	/ 34
〈살아가는 이야기〉 · 한복맵시대회	조명숙 / 36
〈역사zoom〉 조선시대 선비	이을영 / 44
	정기숙 / 47

『용인문화』VOL 9 2009 여름호

권두시 · 굴렌 굴드에게	박후기 / 2
〈포토스케치〉 · 아슬아슬 줄타기	이호경 / 4
〈초대 시〉 · 속 눈썹의 효는	이은구 / 6
〈용인논단〉 · 용인지역문화의 어제와 오늘	박해람 / 7
〈에세이〉 · 이제는 생거용인을 말하리라	전관수 / 10
〈테마인터뷰〉 · 한국민속촌 전통부채공방 문일웅 옹	서정표 / 12
〈테마기행〉 · 강릉의 단오제	진 숙 / 16
〈탐방〉 · 용인문화원 한시동호회	서정표 / 21
〈용인의 맛집〉 · 풍덩이	김미숙 / 23
〈용인의 생태보고서〉 · 야생화의 여름	전은미 / 27
〈용인의 문화재〉 · 원삼면 문수산 마애불	정양화 / 31
〈용인문화시설〉 · 석주선 박물관	이을영 / 35
〈탐방〉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김지혜 / 39
〈포토스케치〉 · 제7회 포은문화제	/ 42
〈문화원 소식〉 · 문화가족 워크숍	/ 43
〈향토유적 순례〉	진 숙 / 44
〈클로즈 업〉 · 한국민속촌 내 양반가옥 옛보기	송무경 / 48
〈명가를 찾아서〉 · 진주소씨 남강공파 종중	홍순석 / 54

『용인문화』VOL 10. 2009 가을호

권두시 · 겨울 북한강에 와서	김윤배 / 2
〈명사칼럼〉 · 세계최고 용인이란	김윤순 / 4

〈에세에 산책〉 · 노구봉 가는 길 완독을 굶꾸며	이윤경 / 6 이향란 / 8
〈초대시〉 · 고추잠자리	김건환 / 10
〈테마인터뷰〉 · 심곡서원 학장 월하 조성달	서정표 / 11
〈테마기행〉 · 만산홍엽 유리를 부른다	이제학 / 16
〈명가를 찾아서〉 · 의령남씨 문충공파	홍순석 / 20
〈문화논단〉 · 끝나지 않은 역사 '석기시대'	정기숙 / 25
〈용인의 맛집〉 · 공세동 남원 박첨지 추어탕	김미숙 / 29
〈생태보고서〉 · 가을 들꽃 이야기	손윤환 / 33
〈용인문화시설〉 · 세종 옛돌박물관	이을영 / 37
〈테마기행〉 · 용인 시티투어 따라잡기	김지혜 / 42
〈포토〉 · 경기민속예술제	/ 48
한지공예 · 실버합창단 모 집	/ 50
〈클로즈 업〉 · 한국민속촌 장터	조명숙 / 52
〈포토 스케치〉	김호경 / 60